# 대전투데이

의료광고심의 190802-중-97491
보문산 생태요양병원
042) 222-5567
암 재활
암 면역
영양식단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3608호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 시설 내 노인 학대 10년 동안 9배 늘어… "예방 대책 마련 시급"

시설 내 노인 학대가 10년 동안 9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는 617건으로 2009년 71건 대비 8.6배 증가했다.

전체 학대 건수 역시 2009년 2천674건에서 2019년 5천24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시설별 학대 발생 건수는 노인의료복지시설(432건), 재가노인복지시설(128건), 노인주거복지시설(54건), 노인여가복지시설(3건) 순이다.

학대 유형은 방임이 3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학대(163건), 정서적 학대(1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60개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312명에 '시설 내 학대 목격 경험'을 질문한 결과 입소 노인 학대 행위 목격 경험률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한 학대 유형은 이용자 요구를 무시하는 방임, 화를 내며 이용자에 소리를 지르는 정서적 학대,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신체적 학대 등이다.

특히 시설 학대 경우 단기적 일회성 학대부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 학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사연은 시설 학대는 직원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설 직원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나 원인 파악과 대안 모색, 법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 자신의 성향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 부담 완화 ▶학대가 발생하면 신속히 기관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문화 변화 주도 ▶지자체 관리 ·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임정미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 피해자는 본인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이거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 상시 돌봄이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이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학대 유형과 수준이 다양하고 모든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의용소방대장들과 허심탄회**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오후 삼성119안전센터 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장 10명과 함께 '허심탄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각종 재난 · 재해 상황에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간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중대본 "영유아 감염경로 대부분 가족… 부모 적극 접종해야"

### "1차 접종 52.0%… 접종률 높아지면 전파력 · 위험도 점차 감소할 것"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최근 영유아집단 감염의 감염경로가 대부분 가족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영유아 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백신 사전예약과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현재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4일 39만 7000명의 국민께서 1차 접종을 했고 58만 8000명이 2차 접종을 받는 등 전국에서 약 99만 6000회 접종이 이뤄졌다"면서 "인구 대비로 1차 접종은 52.0%,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25.1%"라고 전했다.

또한 "오늘 화이자 백신 159만 9000회분이 도입되는 등 백신 도입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3일 도입된 모더나 백신 101만 회분을 포함하면 7월 1일부터 도입된 백신은 총 2689만 회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괄반장은 "계획대로 접종이 진행된다면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게 된다"면서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50% 가까이가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종률이 이 정도까지 높아지게 되면 코로나19 전파력과 위험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6일부터 18~49세 연령층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아직 예약하지 못한 청장년층은 9월 18일까지 추가적인 예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고령층 중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예약하실 수 있는 만큼, 예약대상자들께서는 본인의 건강과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예약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행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줄여나가며 차분하게 예방접종을 확대하면 4차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이런 결과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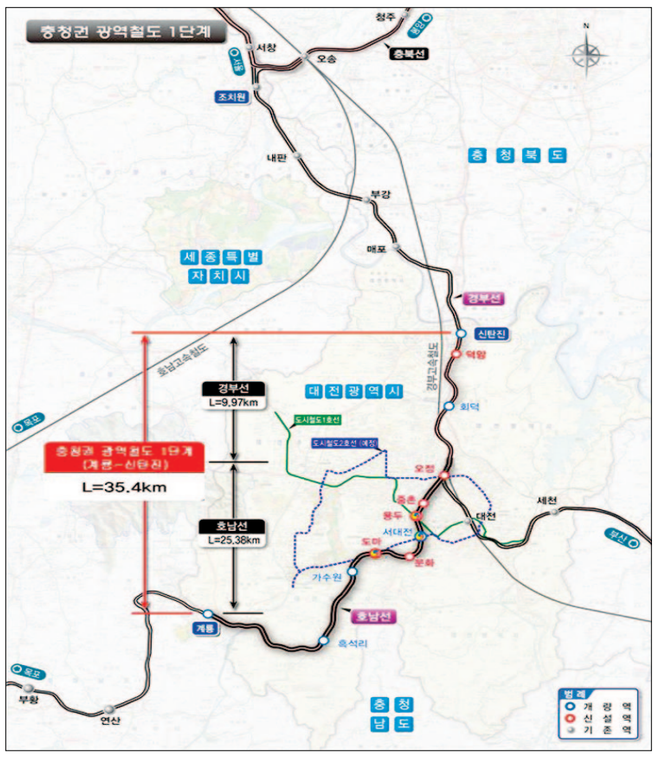
한편 박 총괄반장은 "코로나19 유행과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정부는 이분들에게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경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업종에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1차분 3조 원 지급을 완료했고, 2차분은 다음 주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 대전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추진 탄력

###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2307억 원 → 2694억 원으로 증액




대전시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결과 2,307억 원에서 2,694억 원으로 증액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충남 계룡역 ~ 대전시 신탄진역 구간(35.4㎞)에 기존 선로(호남선 25.38㎞, 경부선 9.97㎞)를 활용하여 정거장 개량(6개소) 및 신설(6개소)을 통해 시외곽에서 도심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2024년까지 이며,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추진 본격화를 위한 차량 구입은 지난 4월 체결(국토부, 대전시, 충남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된 운영협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할 예정이다. 10월까지 구매계획 수립, 안전성 검증, 사전규격 공고 등 절차를 거쳐, 11월 입찰공고, 12월 계약체결 후 2024년 상반기 차량을 납품받을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분야별(노반, 건축, 시스템 등)로 특별한 문제없이 설계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분야별로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도 상반기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2024년 하반기 "중부권 최초의 광역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다.

대전시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현재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2024년 하반기 개통에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 중 한 곳 문 닫을 듯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사항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는 이달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그렇게 보도됐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따라서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는 폐업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들이 ISMS 인증을 신청한다 해도 인증 획득에는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는 두코인, COCOFX, 엘렉스,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이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 ·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4월 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41건으로 520명을 수사 · 검거했다. 검 · 경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 수익 255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 추징 보전했다.

이 가운데는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 여명으로부터 2조 2133억 원(재투자금액 포함시 3조 8400억 원)을 편취한 대형 사기사건이 포함됐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파악한 피의자 77명 가운데 7명을 구속했으며, 2400억 원을 몰수 보전했다.

김정환 기자

#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시 의원면직 못한다"

## 국토 · 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 1,569개 사규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 ·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 · 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기관이 있었다.

예산 지급기준 ·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출특례규정을 두는 등 예산집행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투자 · 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출특례규정 등 자의적 예산집행기준을 정비하고 투자 · 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임직원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수준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 · 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 · 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기경위 "4차산업혁명 선도할 로드맵 마련"**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 · 이하 기경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보에 나섰다.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25일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충남ICT(정보통신기술산업)융합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한 계룡 하대실 2지구와 아산 탕정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는 공동 및 단독주택 용지와 공공기관청사, 체육공원, 도로, 소하천 등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된다. 완공되면 도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되고 충남의 신성장 거점으로서 새로운 발전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더민주당 대전시당, 2021년 제 1기 정치 아카데미 개강

## 내달 2일 부터 각 분야 전문가 강사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영순)은 정치 신인 발굴과 당원들의 정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1년 제1기 정치아카데미를 연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눈높이는 날로 엄격해지고 있어 이에 걸맞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질 함양을 위해 마련된 정치아카데미는 10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박영순 시당위원장을 비롯, 이광재 · 장철민 · 황운하의원과 영화 '변호인'의 양우석 감독, 한빛미디어 박태웅의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한국정치와 정당, 선거를 통해 본 한국정치, 국제정치 질서 등 정치 이론과 실제 경험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1기(9월 2일~11월 4일), 2기(11월 1일~1월20일)로 나눠 진행되는 정치아카데미 모집 인원은 38~40명이다.

1기는 오는 27일까지 모집, 9월 2일 개강하며, 첫 강좌는 '민주주의와 정당의 이해'를 주제로 박영순 시당위원장이 강의한다.

장철민 대전시당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아카데미를 통해 정치신인 발굴과 당원들의 정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에 맞는 정책개발에도 힘을 쏟겠다" 며 "지방자치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위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 서산시의회,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24일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양대동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증설 및 기능정상화 사업 현황을 점검 했다.

의원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사 관계자로부터 사업개요 및 시설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해 시설가동 상황을 살폈다.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정상화 사업은 강우시 공공수역 수질 보전 및 하수처리시설 효율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체계구축을 목적으로 국 · 도비 등 370억여 원을 투입 하수처리용량을 증설 중이다.

그리고 반응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4개월간의 종합 시운전을 완료하고 지난 5일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이연희 의장은 "장마 등 강우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효율적 처리와 방류수역 수질개선이 기대된다"며 "안정적인 시설 운용으로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 '대전시의회 정책소통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2)은 25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대면 보고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소통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 욕구 증가 등 환경의 변화, 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대한 근원적 필요성, 의회 운영에서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 의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통한 집행부 견제 역량 강화의 차원에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착수됐다.

오광영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민,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의회 운영의 민주성, 개방성, 효율성 등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개발비를 지원받아 시행됐다. 김정환기자

# '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선 경선 포기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희숙<사진> 의원이 25일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여정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지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치열하게 살아온 제가 국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 교체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부친 토지의 농지법 위반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대선 불출마는 물론 의원직 사퇴의 뜻을 밝힌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윤 의원 부친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세종시 농지 취득자격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봤다.

윤 의원은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김성구기자

# 이정문 의원 "국도1호선 확장 기재부 일괄 예타 통과 결실"

##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 천안지역의 4개 사업 반영 대해 환영

이정문(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 사진)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천안지역의 4개 사업이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정문 의원은 천안병 지역 사업으로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국도1호선 삼룡동 청삼교차로에서 목천읍 남천안IC 구간 4.3km에 걸쳐 6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6차로 확장사업이 반영됨으로써 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 1호선 정체 해소 및 물류 수송의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안외곽순환도로망인 국도21호 대체우회도로 신방~목천 구간과 성거~목천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괄 예타 사업 반영 활동을 전개한 결과 2개 구간 전체가 반영되지 못했지만 우선 성거~목천 구간이 반영됨으로써 천안외곽순환도로망 개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정문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기재부 2차관 면담, 지난 2월 국토부 장관 면담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천안외곽순환도로망 건설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일괄 예타 반영 노력을 펼쳐왔다.

이정문 의원은 "국도1호선 삼룡동 청삼교차로에서 목천읍 남천안IC 구간의 6차로 확장사업의 일괄 예타 통과로 사업준공에 따른 상습 정체 해소와 물류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천안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전체 구간에 대한 일괄 예타 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우선 성거~목천 구간 외곽순환도로망 개설이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외곽순환도로망의 한 축인 신방~목천 구간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4일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천안지역의 경우 천안 삼룡~목천 국도1호선 확장사업, 천안 외곽순환도로 성거~목천 구간 건설사업, 천안 성환~아산 음봉 국지도 확장사업, 천안 북면~입장 국지도 개량사업 등 4개 사업이 일괄 예타 통과사업에 반영됐다.

천안=이정복기자

# 김명숙 충남도의원,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자 선정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 · 더불어민주당 · 사진)이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자치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읍 · 면 지역 주민자치회가 농업 · 농촌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촉진 및 정책 융 · 복합 제도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의원부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공동체 및 도농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과 환경정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는 해에 이런 뜻깊은 상을 받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용진 후보, 대구 전태일 열사 생가 방문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후보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계가 전태일 정신을 잃어 버렸다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는 어제(24일) 오후 6시 대구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전태일 열사 생가를 방문했다. 박용진 후보는 "전태일 정신을 따르겠다는 민주노총이나 노동운동계가 풀빵 하나도 나누고자 했던 전태일 정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초심은 잃어버리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지금의 민주노총, 노동운동계가 있기까지 많은 노동자들의 연대와 희생이 있었다"면서 "노동운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은 사회적 연대에 걸맞게 '더 큰 우리'를 위하고 있는지 늘 돌이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김성구기자

# 이명수 의원 '유곡~역촌 · 음봉~성환' 확장 예타조사 통과

기재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도 ·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송악 유곡~역촌' 및 '음봉~천안 성환' 4차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최종 대상지로 확정된 것에 대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시갑)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고,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한 노력의 결실이 나온 것 같다"며, "이번에 통과된 국도 · 국지도 사업들이 완료되면 지역의 교통인프라가 개선되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1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7월 2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만나 국가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책효과에 대해 이야기 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 바 있다.

이번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일괄 예타)를 통과한 노선은 ▲국도39호선 아산 송악 유곡~역촌(3.98km, 총 사업비 618억원) ▲국지도70호 아산 음봉~천안 성환(9.33km, 총 사업비 881억원) 총 2개의 사업이다.

이 의원은 "기존 선형이 불량하고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아산 송악 유곡~역촌 구간이 확장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외암마을 지역의 개발촉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산 음봉~천안 성환 4차로 확장을 통해 평소 상습적 교통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천안IC 교통량 분산 및 아산신도시 교통 수요에 도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괄 통과된 사업이 향후 차질없이 진행 ·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국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괄 예타 통과 사업은 모두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은 9월 중 국토교통부가 선정할 예정이며, 9월 중 「제5차 국도 · 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2021~2025)」이 최종 확정 · 고시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 당진시의회, 역사 · 문화 전문가 초청 워크숍 실시

## 당진 지역 문화재 가치 증진 위한 열띤 토론 펼쳐

당진시의회가 지난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 「문화재 활용 정책의 경향과 당진 지역 문화재」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지역 문화자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역사문화 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역사문화 분야에 대한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시의원들은 강연 후 토론의 시간을 갖고 '문화재는 적절한 활용으로 시민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두루 누릴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증진된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을 진행한 안양대학교 류호철 교수는 문화재 관리 · 활용 정책과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작년도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 정부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 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한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커뮤니티)와 교육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과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 청소년의 권익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이스포츠 대회 등 장애학생이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회복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매년, 모든 청소년 대상)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리터러시),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매체(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1인 미디어·인공지능(AI) 등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로,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 논산시, 주민의 권한을 주민에게

## 전국 최초 주민자치 업무 지방정부로부터 이양…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논산시가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활동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주권자인 주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사무국 주민자치 업무 권한 및 인사권 등을 전폭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주민자치업무와 사무국 운영을 비롯해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직원 인사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 모든 주민자치 업무영역을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시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보다 적극적인 자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2013년 벌곡면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충남 최초로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시행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시정방침 아래 한글대학, 마실음악회, 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 등 동고동락사업을 비롯해 연간 1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 등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공동체 복원 완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15개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 본연의 기능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주민참여 정책시스템 구축과 역량교육을 실시해 시민을 행정의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전환하는 시민중심 자치분권 플랫폼을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마을에 구성한 494개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가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읍·면·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 업무 영역을 확대, 공동체 민주주의 도시 논산 실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그동안 논산시는 전국 최초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 읍·면·동장 시민추천 공모제 등을 통해 한층 성숙한 자치분권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주민이 주권자로서 스스로 정책에 참여하고, 토론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은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과 업무영역을 마을의 주인인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완전한 주민자치의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가 함께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주민대표기구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치분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 대전세종중기청 '백년가게 현판식' 개최

## 세종시 대표 맛집 '부강옥', 인증서전달 및 경영현장 애로사항청취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청장 조재연)은 25일 세종시 부강면에서 2021년 백년가게로 선정된 부강옥(대표 김도윤)에 대한 백년가게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해 백년가게 인증서를 전달하고,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과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백년가게로 선정된 '부강옥'은 1대 할머니, 2대 어머니에 이어 3대까지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향토 음식점으로, 순대국 제조방법과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는 등 한식의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19년 대비 20%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차별화된 온라인 마케팅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백년가게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강옥은 세종시 거주 어르신들을 초청해 무료시식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재연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기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강옥과 같은 오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하는 백년가게 성공 모델이 확산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비대면, 온라인 소비유통 변화에 따라 라이브커머스와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세종지역 백년가게는 2018년 2곳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8곳이 선정됐다.

송병배기자

# 출생아수 30만명 붕괴… 평생 0.84명 낳는 '대한민국'

지난해 출생아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내려 앉았다. 합계출산율은 역대최저인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수가 2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30만명대를 기록한 뒤 3년만에 20만명대까지 추락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은 지난해 5.3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감소했다. 이 역시 역대 최저치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명이었다. 전년보다 0.08명 감소한 수치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시도별로는 세종(1.28명), 전남(1.15명), 강원(1.04명) 순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0.64명), 부산(0.75명), 대전(0.81명) 등은 1명 미만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초반 여성이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78.9명으로 가장 높다.

김태선기자

## ●동 정●●●

### 서구 밀레니얼 보드 발대식

장종태 서구청장= 26일 오후 4시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열리는 서구 밀레니얼 보드 발대식에 참석.

### 구즉동 신축청사 방문

정용래 유성구청 장= 26일 오전 9시 준공을 앞둔 구즉동 신축청사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

### 코로나19 대응 현장 방문

박정현 대덕구청 장= 26일 오전 9시 법동 종합사회복지관 외 3곳의 주요사업 및 코로나19 대응현장을 방문.

# 민선 7기 3년간 외부재원 991억 확보

## 유성구, 국시비보조금 제외 외부재원 확보… 향후 주요현안사업 추진 위한 노력 집중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3년 동안 중앙정부와 대전시 등에서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외부재원 991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외부재원 991억 원을 유형별로 보면 ▲공모사업(53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281억 원) ▲특별교부세(159억 원) ▲대외기관 평가 시상금(13억 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모사업 등 대외평가가 크게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 부서가 공모사업에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외부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올해는 현재까지 ▲스마트 경로당 사업(9억2천만 원)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2억 원) ▲AI ·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1억5천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8천만 원) 등 17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외부기관 평가에서 8건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선제적인 공모사업 발굴 · 개발을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기 보고회, 공모사업 교육, 수시 업무회의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국회의원, 대전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필요성을 건의해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해 외부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중앙부처 · 대전시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외기관 평가와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정부의 중요시책 및 구의 여건에 맞는 지역현안 사업의 꾸준한 발굴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로 재정 부담을 줄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대전보훈청-건양대평생교육원, '직업상담사 자격 취득 과정' 약정 체결** 대전지방보훈청(청장 황원채)·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는 건양대학교평생교육원과 25일 오후 2시 「직업상담사 자격 취득 과정」을 약정체결했다.

### "상상하고 드로잉하는 웹툰 세상속으로!"

# 시장애인복지관, 웹툰교실 진행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창노)은 1월부터 12월까지 만화그리기에 흥미가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포토샵 프로그램 툴 사용학습 및 드로잉 연습, 시놉시스 제작 등 웹툰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웹툰교실은 지난 1월부터 컴퓨터 기초학습을 시작으로 포토샵을 통한 드로잉기법 학습, 플롯과 캐릭터의 기본원칙 등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해 학습하면서 전문적인 웹툰제작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 웹툰 시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인정하듯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 됐다. 그 속에서 웹툰작가로 활동 중인 장애인도 있어 이들의 행보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문적인 작가로 성공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지난 6일부터 총 3회기 과정으로 웹툰교실 특별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목원대학교 웹툰애니메이션과 교수, 만화작가로 활발한 활동 중인 탁영호 작가의 전 회기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다.

특별히 이번 교육은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인물의 얼굴과 표정, 동작을 직접 그려보고 칸의 구성과 구도에 따른 변화 및 캐릭터와 배경을 설정해 시놉시스를 직접 제작해보았다. 다양하고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재미있는 시놉시스가 연출됐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도 웹툰제작의 기초적인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윤창노 관장은 "대전지역에 장애인들이 장애나 환경적인 제약 없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을 대표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병배 기자

# 대덕구 주민공동체 3곳, 2021년도 그루경영체 선정

### 향후 3년간 지역 내 산림자원 활용한 창업훈련 지원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가 주최하는 2021년도 그루경영체 모집 공모에 주민공동체 3곳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내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사업 콘텐츠를 개발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주민공동체를 선발하고자 마련됐다.

대덕구는 지난 5월 그루매니저 1명이 선정, 그루경영체 모집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선정된 그루경영체 3곳은 ▲마을숲이야기(대표 손갑철 외 6명) ▲숲깨비(대표 강윤희 외 7명) ▲글고운우드캘리(대표 박진희 외 4명)이다. 이들은 향후 3년 동안 산림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 · 홍보 등의 창업훈련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그루경영체에 참여한 주민들 상당수는 '2021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마을여행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로, 우리 주위의 마을공간에서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온 주민들이 공동체를 결성해 창업 단계로의 도약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우리구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관광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다양한 주민교육을 운영해 왔다"며 "이번 그루경영체 공모에 참여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창업 모델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 동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TF 상황실 본격 가동

### 동 보조인력 포함 총 49명… 신속한 지원금 지급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코로나19 비상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 전담 TF팀 운영을 위한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TF팀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지급결정팀 등 3개 팀과 동구 관내 16개 동 보조인력 총 49명으로 구성됐으며 구는 지난 8월 초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기간제 근로자) 41명을 채용한 바 있다.

TF팀의 주요 업무는 ▲대상자 DB적합여부 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대상자 결정 ▲지급결정 읍면동 통보 ▲지원급 지급 관련 시군구 홍보 추진 등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번 국민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에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우대기준을 적용,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중구, 자원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 시범사업 진행

### 유리병(색상별)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강조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자원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유리병,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원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만큼 유리병도 색상별(백색, 녹색, 갈색)로 분리해야 한다. 혼합배출 시 유리병이 파손되어 혼합되는 경우 폐기 처리되므로 재활용률이 떨어진다.

이에 중구는 주민의 재활용품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자원순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32곳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8월말까지 중촌동 금성백조아파트 등 5개 단지에 유리병 분리배출 거치대 11대, 선화동 센트럴뷰 등 27개 단지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59대를 설치하고, 각각 전후 효과를 비교하며 지속적으로 관리 ·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 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해 운영실태 정기 점검, 자원관리 도우미 지원, 불이행 아파트 과태료 부과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최근 재활용품이 다량 배출되나 분리배출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각 물건별 분리 배출 생활화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시민 공영자전거 '타슈' 시즌2 총 5종의 샘플 자전거 전시

대전시는 시민 공영자전거 '타슈' 시즌2(가칭)에 사용될 자전거의 모델 및 색상을 채택하기 위해 총 5종의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다.

대전시는 2022년 2월부터 운영되는 '타슈' 시즌2에 적용될 자전거 색상 및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21.8.25.~8.27까지 3일간 시청 1층 로비에 색상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라 도장된 자전거 총 5대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전시되는 자전거 5대중 3대는 내년 신규 도입되는 자전거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샘플 제작된 자전거이며, 나머지 2대는 기존 타슈와 현재 시범운영중인 타슈 시즌2이다.

이번 전시 목적은 자전거 관련단체의 전문가 의견과 기존 조사된 색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이번 전시를 통한 의견 등을 종합 참고하여 자전거 색상과 샘플 제작된 자전거 모델 3개중 우수 모델을 선정하여 '22년 2월 도입되는 자전거 제작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2년 2월 도입되는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은 공유자전거 시스템으로 자전거 자체에 스마트 잠금장치를 부착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대여 · 반납을 간편화 했으며 기존의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에 신용카드와 온라인 간편결제를 추가해 결제방식을 다양화했다.

개선된 시스템은 위치기반 공유자전거 대여 · 반납존을 설치할 수 있어 공유자전거 대여 · 반납존의 설치 간격을 줄이고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및 관공서, 쇼핑센터 등에 대여 · 반납존 10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영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근거리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공공교통의 한 축으로써 자전거가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서구 치매환자 위한 비대면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으로 개별 서비스 강화

서구(구청장 장종태) 치매안심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치매환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지 학습지, 수공예, 블록 등으로 구성된 인지키트를 제공하여, 대면서비스 축소로 인한 치매환자의 인지 저하를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대상자는 서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80명의 치매환자이며, 인지키트는 주 1회, 1~2시간 동안 2개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총 4주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학습현황 모니터링 및 건강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교재에 수록된 QR코드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 가정에서 학습이 더욱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서구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매 조기진단을 비롯하여 치매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실종예방서비스 등 치매환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

# 철도건설 현장 심정지 근로자 살린 동료들에 감사패 수여

### 심폐소생술 시행 등 빠른 판단으로 소중한 생명 살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25일 지난달 철도건설 현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동료 근로자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 30분경 영동선 개량공사 현장 근로자 이진용씨는 휴식 중 동료 근로자(68세, 남)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어 119 종합상황실로부터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전화 지도를 받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다른 현장 관계자들도 구급차량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차량 유도인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환자는 오전 9시 50분경 도착한 구급대원들의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통해 의식이 회복됐으며, 현재 주거지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동료들은 "당시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우리와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려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심정지 환자는 골든타임 내 초기 응급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발빠른 대처와 침착한 판단으로 한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구한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 ●동 정●●●

###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26일 오후 2시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열리는 2021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

### 머리염색 자원봉사 현장방문

황선봉 예산군수= 26일오전 9시 30분 산성 7리 경로당 예산읍 어르신 머리염색 자원봉사 현장 방문.

### 2022 시책구상 보고회

김석환 홍성군수= 26일 오후 2시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2022 시책구상 보고회에 참석.

###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이행 특별점검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관내 민간 실내 체육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르면, 수영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시간 제한에서는 제외됐다.

군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군은 금주간 충남도 및 예산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시설면적 대비 이용가능 인원 준수 여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소독 및 환기의 주기적 실시 여부 △체육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여부 등이며, 위반한 체육시설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예산 = 이영렬 기자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신청제 접수

홍성군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점검신청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신청제는 주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해소 방안을 제공하고자 도입되었다.

군은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전기·가스·건축 분야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시설물 관리자가 있거나 공사중인 건물, 소송(분쟁) 및 법적 점검대상 시설물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점검 결과 지적된 위험요소는 시급성과 위험 정도를 따져 즉시 개선요청 또는 보수·보강 방법을 제공하고 지적사항이 조치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신청은 오는 9월 10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며 점검대상 시설물로 확정되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점검신청제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군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도·국지도 8개 사업 1조 규모 예타 통과

## 충남도, 천안 성거-목천·서산 독곶-대로·태안 근흥 두야-정죽 등 반영

충남도 내 8개 국도·국지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8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원 규모로, 완료 시 도내 교통 정체 해소와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후보 사업 중 천안 성거-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건설 등 도내 8개 사업이 기재부 일괄 예타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총 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이상 사업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야 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8건 1조 72억 원 규모로, ▲천안 성거-목천(5365억 원) ▲천안 목천-삼룡(639억 원) ▲천안 북면-입장(533억 원) ▲아산 음봉-천안 성환(881억 원) ▲아산 송악 유곡-역촌(618억 원) ▲서산 독곶-대로(522억 원) ▲논산 강경-채운(544억 원) ▲태안 근흥 두야-정죽(970억 원) 등이다.

이 중 천안 성거-목천 국대도는 길이 12.88㎞에 사업비는 5365억 원으로, 도내 반영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도는 이 도로가 건설되면 천안 도심지와 남부순환대로 상습 정체가 해소되고, 천안 외곽순환도로망 완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 독곶-대로, 천안 목천-삼룡, 아산 음봉-천안 성환 등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발생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세 사업이 완료되면 통행시간 단축에 따라 산업단지와 개별 입지 공장들의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태안 두야-정죽, 아산 유곡-역촌, 천안 북면-입장, 논산 강경-채운 등 4건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도로 폭 확장 및 선형 개량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동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는 국도·국지도 사업 계획 반영을 위해 논리 개발 등에 주력, 전국(56개 사업)에서 상위권 수준으로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바로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예타 통과 사업과 함께 500억 원 미만 비예타 사업을 확정, 다음 달 중 도로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 "코로나19 극복하고 풍성한 명절되세요"

## 세종시 사회적경제 추석 맞이 특판전…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매출 극복을 위해 '사회적경제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

추석맞이 특판전에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10곳에서 준비한 25가지 명절선물을 e-카탈로그로 제작해 전국 공공기관과 시민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홍보·판매한다.

또한, 일부 제품 판매를 위해 8월 25일부터 27일 10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3일간은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사회적경제 반짝장터(오프라인 행사장)'를 연다.

반짝 장터에서는 하루에 사회적경제기업 2곳씩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 등 제품을 판매하며, 행사장 방문 또는 유선 구매 시 당일 홍보제품 10% 할인,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커피쿠폰(사회적기업 ㈜봄비와씨앗) 제공 등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맞이 사회적경제 특판전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침체 속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가치소비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품 구매 방법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직접 주문하거나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070-4213-146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태선 기자

#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푸드플랜 발전발향 토론회

## 도출된 개선사항 다각적 검토 거쳐 향후 발전방향 마련

예산군은 24일 (사)예산군농어업회의소가 주관하는 '예산군 학교 급식지원센터 및 푸드플랜 발전방향' 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업인과 군의원, 전문가, 관련기관 및 단체, 군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단국 대학교 환경 자원 경제학과 김호 교수를 좌장으로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의 '예산군 학교급식 및 푸드플랜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와 △예산군 친환경학교급식출하회 황선덕 회원의 '예산군 공공급식 출하회 운영 개선방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협동조합 권지혜 지사장의 '예산군 푸드플랜 기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 △예산군농어업회의소 김일영 이사의 '예산군 푸드플랜 실행계획에 대한 제언' △예산군청 박상목 농정유통과장의 '예산군 학교급식 운영현황 및 푸드플랜 추진방향' 발표 및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예산군 학교 급식 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 3월 개소와 함께 관내 초·중학교 33개소에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래로 2018년 유치원 24개소, 2019년 고등학교 7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어린이집에도 친환경농산물(쌀)을 공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여러 개선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학교 급식 지원센터의 공공급식 확대 운영 및 푸드플랜과 접목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 민속물품 지도관리부실 민속박물관건립 시급

## 홍성군 홍동면 수란리 수란마을 조성부 씨 토지기부 의사

무단방치 되고있는 민속물품들에 대한 당국의 지도관리가 주요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홍성군 홍동면 수란리 수란마을 조성부(사진)씨는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것과 직장생활을 하다가 귀향해 취미로 20여년간 수집한 민속물품이 200여점에 달한다.

그는 마을 한켠 도로변에 본인의 자비로 비닐하우스 50여평을 건립해 보관 관리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

수집한 민속물품은 주로 농촌에서 농사일에 사용하던 물건과 옛날책 등 다양해 그 효용가치가 크다는 것이다.그러나 하우스 속에서 비가림 시설상태로 보관되고 있어 분실,멸실,도난의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와관련해 지난 2012년 희망마을만들기 권역사업에서 민속품으로 자료수집이 인정돼 권역사업의 일환인 신수훤한마을(수란,신기,반교) 빼뽀누리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주민들의 이견으로 현재까지 민속관 건립이 이뤄지지 않고있다.

수란마을(이장 조성환)은 그동안 수차례 행정기관에 건의를 했지만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집자 조성부씨는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민속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자기소유 토지 일부를 기부할 의사가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 있다.

송병배 기자

# 참외와 멜론 합친 '참멜' 첫 출하

## 세종시농기센터, 참멜 보급으로 농가 신 소득원 기대

참외와 멜론이 섞인 '참멜'이 세종시(시장 이춘희)에서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통해 참외와 멜론을 교잡해 만든 참멜(달콤참멜)을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참멜은 참외와 멜론을 교배 육종한 것으로 겉은 참외 모양이지만, 속은 주황색의 색깔을 띠는 신품종 멜론이다.

육질은 멜론의 맛에 가까우면서 멜론보다는 단단하고 참외보다는 부드러운 식감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출하한 참멜은 '달콤참멜' 품종으로 고온에서 병해충 발생이 적고 재배 적응성이 뛰어나, 고온기인 여름철 재배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멜은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중소형 수박 수직재배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에 이동형 수직재배장치를 활용, 참멜 수직재배에 성공하고 출하에 나서게 됐다.

이동식 수직재배 장치는 쪼그리거나 엎드려 해야 했던 농작업을 서서할 수 있게 노동강도를 50% 줄일 수 있으며, 하우스 밀식 재배로 재배수량 또한 2.5배 가량을 높일 수 있다.

최인자 소장은 "소비자 반응 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참멜 재배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에서 재배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물과 신품종을 적극 도입해 로컬푸드 농산물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정밀조사

## 예산군, 무등록·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

예산군은 오늘 31일까지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사에서 군은 부동산 거래 대상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한 뒤,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 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아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양도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한 거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 = 이영렬 기자

###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 '2021년 우리동네 건강 Map Book' 팩트 시트 발간

## 건강격차 해소 및 서비스 표준화로 건강수준 향상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김재경, 사진)는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보다 쉽게 파악해 사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21 우리동네 건강 맵 북"을 발간해 관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도 대사증후군 발견율은 대전 17.02%, 충남 17.54%로 전국 15.60%보다 높고, 특히 '20년도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환 이환 또는 사망 관련 위험요소를 고령자,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흡연으로 규정함에 따라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2021 우리동네 건강 맵 북"은 '15~'19년까지의 대사증후군 발견율 등 건강위험지표와 고혈압·당뇨병 의료이용률, 투약순응률 등 만성질환관리 지표에 대해 성·연령별, 시군구 단위별로 분석한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와 그래프로 제작했고 읍면동 통계표까지 부록으로 실었다.

김재경 본부장은 "이번에 발간된 팩트 시트가 보다 정밀한 건강수준별 맞춤형 예방사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우/리/동/네

천안여성청년 안심프로젝트 실무협력단 운영

## 여성친화도시 실무협력단 회의

천안시가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실무협력단 2차 교육 및 회의를 실시했다.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천안시는 1단계 진입단계로 핵심 목표인 사업추진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여성안심도시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있다.

올해는 실무추진단 중 여성청년이 안심하게 일하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천안여성청년 안심프로젝트'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실무협력단을 별도로 조직하고 6월부터 교육 및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무협력단은 이종기 복지문화국장을 단장으로 7개부서 20명의 관련 부서 팀장과 담당자로 꾸려졌으며,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안전 분야 사업부서 간 상호협력으로 천안형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협업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부성2동 주민자치위원회

## 서북구보건소 의료진에 격려품 전달

천안시 부성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경호)가 25일 서북구보건소를 찾아 생수·음료 각 10박스와 빵 50개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선별진료소 의료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조경호 위원장은 "넉넉하지 않지만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부성2동 주민자치위원회도 방역수칙 홍보 및 방역 사각지대 점검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장헌 부성2동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루 빨리 진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예찰활동 펼쳐** 천안시 직산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화)는 25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을 펼쳤다. 이날 주민자치위원회는 월례회의를 대신해 3~4인씩 조를 나눠 주민자치센터의 실내 방역 활동 및 마스크 착용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홍보했다.

**중앙동, 코로나19 극복 이색 캠페인 실시** 천안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권홍주)가 25일 오전 남부오거리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이색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을 홍보하고자 회원 및 직원들이 직접 슈퍼맨, 배트맨 등의 인기 캐릭터 의상을 입고 캠페인을 펼쳐 출근길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천안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 방역 비상

### 월 외국인 확진자 40명 기록, 7월 15명 대비 25명 증가

천안시가 외국인 확진자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 8월 확진자 468명(해외유입 28명 제외) 중 외국인 확진자는 40명(8.5%)으로 7월 15명(3.5%) 발생한 것에 비해 25명이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8월 외국인 확진자 감염 경로는 선행확진자 접촉 17명(42.5%), 감염경로 조사 중 15명(37.5%), 타지역 확진자 접촉 8명(20%) 순이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26명(65%)명, 네팔 6명(15%), 태국 3명(7.5%), 기타 5명(12.5%), 직종별로는 건설·농업 일용직 18명(45%), 대학생 9명(22.5%), 제조업 등 13명(32.5%) 순이었다.

외국인 감염이 증가한 이유로는 델타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과 함께 ▲내국인 대비 낮은 접종률 ▲방역 수칙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점 ▲열악한 주거·근무시설 ▲미등록 외국인의 검사 기피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파악된다.

천안시는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고용주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다국어 안내문 배포 및 마을 안내 방송 실시,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 내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 중점 운영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 개학 후 학생 확진자 발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8월 확진자 468명 중 50명, 약 10.7%) 이에 시는 이동 수업을 자제하고 하교 후 즉시 귀가, 유증상 시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 받기 등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현재 선별진료소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외국인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용주분들의 적극적인 검사 독려와 채용 전 검사결과 확인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동 정**

**열린 시장실**

박상돈 천안시장= 26일 오후 2시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시장실, 시문박답'을 운영.

## 천안시 '님비 극복' 목천위생매립시설 증설 추진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전 해결 및 주민협의체 노력으로 매립장 확장

코로나19 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며 위생매립시설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극복하고 목천위생매립시설 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활폐기물이 소각시설로 처리용량 생활폐기물이 한계 이상으로 반입됨에 따라 목천위생매립시설로 반입해 처리하고 있다.

목천위생매립시설은 일일 146톤 기준으로 2032년 매립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일일 최대 30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면서 매립종료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시는 사전 대비를 위해 긴급히 매립장 확장에 나섰다.

시는 현재 10만7906㎡ 매립면적에 212만837톤/㎥ 매립용량을 소화 중인 시설을 8만여㎡ 더 증설하며 매립을 20~30년 이상 늘릴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토지매입 등 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사전 민원을 해결하고있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는 조속한 매립장 증설 필요에 대해 공감하고, 토지소유주들의 자발적인 매수 건의 및 인근 주민들의 찬성을 이끌어 내 지난해 6월 회의를 열어 증설에 관한 사항을 통과시켰다.

이후 시는 매립시설 3차 증설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지난해 9월 25일 협약을 체결해 상호간 매립시설 증설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앞으로 시는 2023년까지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2024년 매립장 건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6년 매립장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매립장 증설 과정에서 갈등이나 님비현상 없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협의에 응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토지소유주, 주민들의 노력과 사전 민원 해결 및 주민지원계획 수립으로 만들어낸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으로 시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생활폐기물 처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안시,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 주민 의견 청취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 대한 주민 열람 실시·의견 접수

천안시가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시는 행정구역 전역(636㎢)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며,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기 계획이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통해 각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사항과 각 생활권별 지역 주민의 민원 및 의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보전과 개발의 조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을 중점으로 재검토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재정비안에서는 집행을 수반하지 않는 과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 천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열람 후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최종 고시된다. 열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달 10일까지 시청 도시계획과(9층)를 방문하면 된다.

천안=이정복기자

## 박완주 정책위의장 "천안시외곽순환도로 구축에 청신호 켜져"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천안시 관내 3개 도로사업 반영 예정 쾌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은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예비타당성심사에 천안시 관내 3개 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성거~목천 건설사업 ▲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사업 ▲국도 1호 목천~삼룡 6차로 확장사업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도대체우회도로 '성거~목천' 건설사업이 정부의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될 예정으로 천안시외곽순환도로 구축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천안시외곽순환도로의 주요축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성거~목천' 건설사업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서 목천읍 국도 21호선까지 잇는 총12.9km의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전액국비로 5,36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지도 70호선 중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부터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까지의 9.4km 구간을 4차로 확장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881억 원의 전액 국비사업이다.

또한, 국도 1호 노선 중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남천안IC) ~ 삼룡동(청삼교차로) 까지의 4.3km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 필요성이 인정돼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천안시·충청남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해당 구간의 조속한 완공으로 상습차량 정체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발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 충남중기청, 아마존과 해외조달 활용 수출설명회 개최

### 세계 최대 B2C 마켓플레이스 활용으로 수출활로 개척

### 충남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공략 지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성식, 이하 충남중기청)은 오는 31일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아마존과 해외조달을 통한 온라인 수출마케팅 설명회'를 화상세미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판매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코리아에서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 이해와 아마존 입점안내 및 성공전략 등을 전달하고, (사)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에서 국제 조달시장 진출체계, 유망분야, 유의사항 등 수출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조달시장 진출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설명회의 주요 참석대상은 아마존닷컴 입점이 유리한 소비재 완제품 기업과 국제 조달시장 입찰 적합 품목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이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충남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온라인(https://tiny.url.com/msschungnam210831)으로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수강 규모는 전국 300명 내외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며, 접속 링크는 신청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받을 수 있다.

송병배기자

천안시, 우리동네 주민지킴이

'파랑새 편의점' 현판식

천안시는 25일 불당동에 소재한 GS25 불당프라자점에서 파랑새 편의점 현판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7월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편의점 5개사와 파랑새 편의점 복지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지역 5개 편의점 브랜드는 방문 손님 중 자살의심자, 학대의심 아동, 치매노인 등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천안시에 신고한 뒤 임시보호 조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GS리테일 조만환 부문장, 장윤곤 천안시행복키움지원단장 협의회장, 김태형 GS25 경영주단체 천안지역대표 등이 참석했다.

파랑새 편의점은 실제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성환읍의 한 편의점주는 매일 소주 2병을 사러오는 손님을 유심히 지켜보다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알코올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구조했다. 또 서북구의 한 GS25 편의점도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원룸거주 60대 여성을 신고해 식생활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앞으로도 527개 편의점은 위험 징후 대상자 발굴 신고 및 임시 보호소로 활용된다. 시는 위기가정 발생 신고를 받으면 현장 확인을 거쳐 신속한 민·관 서비스를 제공해 위기가구의 일상생활 회복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천안=이정복기자

## 천안동남소방서 생활용 전기

### 제품 화재 각별한 주의 당부

충남 천안동남소방서는 25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생활용 전기제품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5월) 생활용 전기제품 관련 화재는 41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 총 334건 중 12.3%를 차지했다.

이중 인명피해는 2명(부상 2명), 재산피해는 2억 1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화재발생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화재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21건 51.2%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18건 44%에 달했다. 이어 전기적 요인 17건 41.%, 기계적 요인 5건 12.2% 순이었다.

화재 발생 기기별로는 주방기기 17건 41.5%, 계절용기기 13건 31.7%, 생활기기 8건 19.5%, 기타 전기기기 3건 7.3% 순이다.

소방당국은 생활용 전기제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생활용 기기 플러그 뽑기,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 금지, KC인증 제품 사용, 전열제품 사용 시 주변 가연성물질 제거 등의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논산소방서, 차량용품 활용한 차량용소화기 비치 홍보**

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차량용 용품을 활용하여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독려하기 위해 생활 속 밀착 집중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DL이앤씨와 맞손** 국가철도공단 김용두 수도권본부장(왼쪽)이 25일 본부 회의실에서 DL이앤씨 이동희 토목사업본부장(오른쪽)과 '대심도 터널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건협 채종일 회장, 세계기생충학자연맹 화상회의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종일 회장(현 세계기생충학자연맹 회장)이 지난 13일 세계기생충학자연맹(WFP, World Federation of Parasitologists) 집행진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202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 예정인 ICOPA 2022 준비 및 2026년 차기 개최지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기생충학자연맹에서 발행 중인 국제학술지 Parasite Epidemiology and Control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 "무좀약 · 피부약, 안약인 줄 알고" 안전사고 급증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무좀약이나 피부질환약, 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는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황사 · 미세먼지 등 환경요인, 안구질환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유행성 눈병 등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정보를 조사한 결과, 무좀약 · 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총 152건 발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인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덥고 습한 여름철에 무좀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무좀약 · 안약 등을 같이 보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습진 · 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 의약품'이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으로 확인됐다.

안약 오인 점안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60대 이상 5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 순으로,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도 이어지면서, 소비생활 변화에 따른 오인 제품 유형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들에게 위해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해 위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주요 무좀약 제약회사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동물용 안약 · 안구세정제 · 의약품 등을 인체용과 분리해 별도 보관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네일아트 제품을 구입해 가정에서 직접 손톱을 관리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이를 안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힘 적합도 '윤석열 29% - 홍준표 20.8% - 유승민 11.1%'

### (한길리서치) 국민의 힘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결과

<폴리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 8월 4주차(21~23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홍준표 의원이 20%대 지지율에 진입해 양강구도를 나타냈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더니 윤 전 총장 29.0%, 홍 의원 20.8%, 유승민 전 의원 11.1%, 최재형 전 감사원장 5.5%, 하태경 의원 3.4%, 원희룡 의원 2.9%, 윤희숙 의원 1.5% 등이었다(기타 인물 2.4%, 없다 19.6%, 잘모름/무응답 3.7%).

직전조사(7~9일)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0.6%p 소폭 감소했지만 홍 의원은 7.5%p 큰 폭으로 증가해 윤 전 총장과의 격차를 8.2%p로 좁혔다. 또 유 전 의원 지지율은 1.1%p 오른 반면 최 전 원장은 2.7%p 하락했다. 이에 따라 공고했던 윤 전 총장 독주체계는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양강구도로 변화됐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지지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윤석열 27.8% 대 홍준표 26.9%)은 비슷했으나 여성(30.2% 대 14.9%)에서는 윤 전 총장이 우위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윤석열 22.6% 대 25.5%), 30대(20.1% 대 27.1%), 40대(19.2% 대 24.8%) 등에서는 홍 의원이 오차범위 내서 소폭 앞서며 경합했으나 50대(28.7% 대 18.9%), 60대 이상(44.6% 대 13.2%)은 윤 전 총장이 우위를 보였다.

권역별로 서울(윤석열 28.4% 대 홍준표 23.0%), 부산/울산/경남(25.6% 대 22.6%)에서는 두 후보가 경합했고 대구/경북(37.9% 대 22.2%), 충청권(33.1% 대 20.0%), 경기/인천(29.2% 대 18.1%) 등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섰다. 호남권(18.0% 대 26.5%)에서는 홍 의원 지지율이 더 높았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윤석열 56.7% 대 홍준표 19.0%)과 국민의당 지지층(46.9% 대 7.9%)에서 홍 의원에 우위였고 홍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28.0%)과 열린민주당 지지층(34.7%)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윤 22.7% 대 홍 12.4%)에서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더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윤석열 40.6% 대 홍준표 22.5%)은 윤 전 총장 지지율이 홍 의원에 비해 높았고 진보층(15.5% 대 21.0%)에서는 홍 의원 지지율이 다소 높았고 중도층(29.7% 대 21.7%)에서는 윤 전 총장이 조금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9.6%, 무선 ARS 80.4%, 성/연령/지역별/할당 무작위 추출)으로 진행됐다.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2021년 4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했으며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 KT&G '릴 하이브리드 2.0' 볼빅 골프에디션 출시

### 세계적인 컬러볼 브랜드 볼빅과의 콜라보레이션 제품 선보여

KT&G(사장 백복인)가 골프용품 브랜드인 '볼빅(Volvik)'과 콜라보레이션한 '릴 하이브리드 2.0 볼빅 골프에디션'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볼빅 골프에디션'은 새로운 디자인과 색상을 적용한 '릴 하이브리드 2.0'과 볼빅의 'NEW VIVID' 골프공 3구, 콜라보레이션 기념 볼마커가 함께 동봉된 기프트박스 형태로 구성됐다. 볼빅 골프공의 색상에서 영감을 받은 '레드'와 볼빅만의 개성있는 아이덴티티를 디자인에 적용한 '화이트' 2종으로 출시된다.

지난해 2월 출시된 '릴 하이브리드 2.0'은 스틱 삽입 시 버튼을 누르는 과정 없이 자동으로 예열되는 '스마트 온' 기능을 궐련형 전자담배 최초로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OLED 디스플레이를 디바이스 전면에 장착해 배터리와 카트리지 잔량, 흡입 횟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릴 하이브리드 2.0'은 이전 제품인 '릴 하이브리드 1.0'의 풍부한 연무량과 찐맛 감소 등의 장점은 유지한 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제품으로 국내시장에서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60만대를 돌파하고 일본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릴 하이브리드 2.0 볼빅 골프에디션'의 권장 소비자가는 99,000원이며, 릴 플래그십 스토어인 '릴 미니멀리움(lil MINIMALIUM)'과 온라인몰인 '릴스토어'에서 25일 우선 선보인다. 이어 9월 8일부터는 CU와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인 쿠팡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다만, 한정 수량으로 출시됨에 따라 편의점의 경우 사전 발주를 진행한 점포에서만 판매된다.

임왕섭 KT&G NGP사업단장은 "지난해 출시한 '릴 하이브리드 2.0 테일러메이드 골프에디션'에 이어 '볼빅'과 함께한 이번 한정판 역시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KT&G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 대전충남병무청, 병역지정업체장 '랜선소통의 날' 개최

### 권익보호와 제도 이해 통한 상호 공감대 증진 위해 매달 실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25일 관내 병역지정업체장들과 '랜선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랜선소통의 날'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장 및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장들과 의무자의 권익보호와 제도 이해를 통한 상호 공감대 증진을 위해 매달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복무인원이 다수인 관내 병역지정업체장들이 참석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환경 개선 등 권익보호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성케미칼 병역지정업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청장님 및 담당자 그리고 다른 지정업체의장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경험사례를 나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홍승미 청장은 바쁜 와중에도 병무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해준 업체장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정업체장과 비대면 소통채널을 활성화해 산업지원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아산시, 지방세 체납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적극 압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충남 최초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추심을 추진한다.

2021년 7월 말 현재 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1만6,165명으로 아산시 인구의 약 5%를 차지, 100명 중 5명은 외국인이다. 이러한 아산시의 외국인 비율 증가 추세와 함께 외국인의 체납률 또한 내국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금 압류를 적극 추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납 상태로 보험금을 찾아 출국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5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268명(총체납액 약 3억 원)의 명단을 지난달 전용보험회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내 체납된 외국인의 압류 가능 보험금을 확인한 결과 압류 가능한 보험금 26건, 2800여만 원을 확인해 즉시 압류 처리했다.

아산=리량주기자

daejeontoday.com

### 충남소방, 위험물 탱크로리 3대 불법 요인 집중 관리

## 위험물 탱크로리 집중 관리 돌입

충남소방본부가 위험물 탱크로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등록된 2064대로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3대 불법 요인(명의변경 · 용도폐지 및 주차 장소)에 대한 준수 여부이다. 조사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 소방본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 '주민참여 범죄예방진단팀' 운영

### 대전대덕경찰서, 전국 최초

대전대덕경찰서(서장 박세석)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발맞춰 지역 주민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데에 중점을 둔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다.

첫 번째로 지난 6월부터 공개 모집한 『주민참여 범죄예방 진단팀』과 함께 대덕구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일원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경찰청 예산 5천만 원)을 추진하면서 사전진단과 설문조사 등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사업현장에는 이전의 어둡고 불안했던 도서관 주변 길가에 바닥조명, 센서등, 볼라드등, LED입체벽화를 설치하는 등 여성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밝고 친근한 '안심동행 귀갓길'을 조성하였다.

이정복기자

### 공주경찰서, 위험물 운반자도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

## 위험물 화물차 운전자 안전교육 필수!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가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운반자도 위험물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위험물 운반자란 위험물을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말한다. 그간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에 대해서만 관할 소방서로부터 허가받아 운반하게 돼 있던 탓에 운전면허만 있으면 위험물이 담긴 용기를 싣고 운행하더라도 제재할 방도가 없었다. 지난해 6월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해 1년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0일 시행되었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 예산소방서, 비오는날 운전시 각별한 주의 당부

## 비오는 날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예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최근 태풍의 영향과 계속되는 비소식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빗길 운전시 평소보다 훨씬 위험하고 가장 큰 이유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 첫째고 폭우가 아니더라도 작은 빗방울에도 전 · 후방 가시거리는 대폭 감소하며, 주간보다는 야간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또한 비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핸들 조작이 어려워지고 제동력을 잃는 '수막현상'이 발생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빗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워 교통사고의 확률은 평소보다 약 30% 증가한다.

빗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제동장치, 와이퍼 등 사전 차량점검 ▲앞차와의 간격을 평소보다 50%이상 유지 ▲평소보다 20%감속 운행(생활도로에서는 30km/h이하 유지) ▲항상 전조등을 켜는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오식 예산 소방서장은 "빗길 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주변 시설이나 차량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기자

### 태안해양경찰서,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 추석 연휴 대비 여객선 합동점검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다가오는 추석연휴 대비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24일 여객선 합동점검(사진)을 실시했다.

이날 구도 팔봉산호와 안흥 가의도호 등 태안 관내 여객선 2척을 대상으로 진행된 합동점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보령 운항관리센터,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항해 · 갑판 · 기관 선체 각부와 소방 · 구명 · 통신 설비, 각종 편의 시설 등을 중점 점검 했다.

또, 여객선의 코로나19 안전을 위해 승선자 마스크 착용, 발열 측정, 손소독제 비치 등 기초 방역실태 점검도 이뤄졌다.

태안=김정한기자

# 2024학년도 수능 '공통+선택과목' 치른다

## 2023년 11월 16일 시행…공통과목서 75% · 선택과목서 25% 출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2년 뒤 고3이 됐을 때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이 발표됐다.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는 등 대부분 현행 체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교육부는 24일 '2024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된 국어 · 수학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그대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취지에 맞춰 올해 11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기존의 문 · 이과 구분을 없앴다. 대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어 · 수학 영역을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국어 과목에서는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에 응시해야 한다. 선택과목으로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가운데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수학에서는 '수학 I' '수학 II'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선택과목으로 골라야 한다. 국어 · 수학 영역별 전체 문항 중 75%는 공통과목, 25%는 선택과목에서 출제된다.

사회 · 과학탐구는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정해 시험을 보면 된다. 직업탐구 역시 국어 · 수학과 마찬가지로 공통과목 · 선택과목 구조다. 2개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경우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1개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경우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만 선택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과목으로 유지된다.

한국사와 영어, 제2외국어 · 한문은 절대평가로 등급만 공개된다.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 방식에 따라 구분해 9등급으로 나뉘어 표기된다. 시험은 오는 2023년 11월 16일 치러지며 성적은 12월 8일 공개된다.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당해와 다음 연도인 2025학년도까지 수능을 치를 수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보다 세부적인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2023년 3월 말 전에 공고할 방침이다.

이정복 기자

**세종시교육청,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6월 말 기준 4대 정책분야 70개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제3대(혁신2기) 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은 총 4개 분과별 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기준 공약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개선 ·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2021 서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감 감사패 수여**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만희)Wee센터는 25일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충청남도의회 전익현, 양금봉 의원, 교육청 관계자, 서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2021 서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감감사패 수여와간담회를 가졌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에 방역물품꾸러미 전달받아**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구)은 24일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로부터 우리지역의 청소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키트 꾸러미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천안여고 2022 교육과정 과목 선택 위한교과박람회 실시** 천안여자고등학교(교장 가경신)는 24~25일 이틀 동안 진향관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2022 교육과정 과목 선택을 위한 교과박람회'를 실시했다. 이틀간 실시된 '2022 교육과정 과목 선택을 위한 교과박람회'는 학생들의 진로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특색 있는 선택중심 교육 과정 설계를 위한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충남대 교육학과 학술대회 개최

충남대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교육학과 BK21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사업단이 8월 27일(금) 오후 2시,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의 실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면과 비대면(ZOOM)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미래사회의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주제로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민과 교육학 학부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서재복 전주대 교수가 '세계시민교육의 이해와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이어 '청소년의 시민가치 형성을 예측하는 요인의 국가 간 비교: 한국, 대만, 홍콩, 핀란드를 중심으로(한수연)',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조성환, 김기덕, 백예은, 김재은)',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학교적응, 진로장벽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문희정, 김은에)'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특강이 끝난 뒤에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면(사범대학 글로벌인재양성센터)과 온라인 비대면(https://c11.kr/f9db)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개최방식 변동될 수 있음)

이정복 기자

### 충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26대 윤희송 원장 취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제26대 원장으로 윤희송 원장이 취임했다.

윤희송 원장은 태안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학교 수학교육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1986년 아산 도고중학교에서 교사로 첫발을 내딛은 후 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충남교육청 장학사, 안면고 교감, 태안고 교장, 당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역임하였다.

윤희송 원장은 취임식에서 변화와 성장을 강조하며 "수요자 중심의 소통과 공감으로 감동 주는 연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수원의 본원의 역할인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직원 전문성 강화에 힘쓰며, 스마트 시대에 적합한 연수환경의 최적화와 고품질 연수 운영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상범 기자

## 충남도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자 중심 개선

### 점자블록, 점자 표지, 장애인 주차장, 안내데스크 개선 등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국민권익위원회 이슈보고서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 관련 민원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 점자블록 주변 장애물 제거 및 점자블록 추가 · 변경 설치 ▲ 층수가 표기되지 않은 계단 손잡이 점자 표지를 층수 표기로 변경 설치 ▲ 장애인 주차장 재도색 ▲ 안내데스크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확보 등 장애인 민원인의 쉬운 접근을 중점으로 개선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이용하여 청사 내로 안전하게 진입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물 내 층수를 점자로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는 안내데스크에서 편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증가하였다.

김지철 교육감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보행 안전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내방하는 민원인의 작은 불편 하나에도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민원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공주대 원성수 총장 '미래교육과 학교' 주제로 특강

### '2021 혁신미래교육 리더과정' 직무연수 실시

국립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지방교육정책개발원(원장 양병찬)은 24일 대학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충남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2021 혁신미래교육 리더과정'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2021 혁신미래교육 리더과정 직무연수는 혁신미래교육의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성 특화프로그램으로 마을교육생태계, 학교공간혁신 등 충남교육정책의 주제 맞춤형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이다.

이날 원성수 총장은 "미래교육과 학교"이라는 주제로 IT발달과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른 일자리 감소,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대비한 미래교육 정책 방향의 변화를 제시했다.

이어 특강에서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의 변화 및 재구조화를 통한 학교와 교원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며 충남교육의 고민과 앞으로의 미래교육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됐다.

공주 =정상범 기자

## SW 교육과 산업 발전 위해 지역 대학들 업무 협약 체결

### 충남 SW중심대학 선문대, 순천향대, 호서대 맞손

선문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이현)은 24일, 선문대 아산캠퍼스 에듀테크플라자에서 호서대 AI · SW중심대학사업단, 순천향대 SW중심대학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대학들은 지역 SW중심대학 간 상호 발전과 충남 지역의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효과적을 추진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앞으로 세 대학은 우수 사례 등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소프트웨어 교육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청남도 김미숙 ICT융합팀장, 아산시 최경화 경제정책팀장 등 지방 자치 단체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사도 참석해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산(産) · 학(學) · 관(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아산 =리량주 기자

## 산림치유원 "여름에는 숲콕하세요"

### 여름 휴가철 맞아 특별 프로그램 2,600명에 제공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원장 김종연)은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인고객 26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 '숲에서 여름을 열음'을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가족단위의 여름휴가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시원한 숲바람 쉼터, 계곡, 잣나무숲과 같이 녹음이 우거진 소백산에서 '숲콕'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풍경화, 시, 편지 등 다양한 주제로 나만의 부채를 만드는 '숲 바람 부채 만들기', 숲속 쉼터에서 풍욕을 즐기는 '숲 치유 프로그램', 해먹 · 텐트에서 경관을 보며 족욕과 수중 걷기를 체험하는 '유유자족(足)' 등이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발열체크와 손 씻기 등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됐다.

송병배 기자

## 대전하나시티즌, 코로나19 고통분담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참

대전하나시티즌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대전은 2020년부터 대전광역시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시설 운영권을 양도받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악재 속에 영업중단 · 매출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수영장, 볼링장 등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실시했다.

1차 착한 임대료 기간(2020. 2 ~ 2020. 7) 동안 경기장에 입점한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50% ~ 최대 80%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약 3억 3천만 원을 지원했다. 2차 착한 임대료 기간(2020.8 ~ 2020.12)에는 동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50%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약 1억 3천만 원을 지원했다. 3차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경기장에 입점한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 ~ 6월까지의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1차 ~ 3차에 걸쳐 대전은 입주 기관에 약 6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감면을 검토 중이다.

김정환 기자

## 금주의 孝 사자성어

| 忠 | 孝 | 雙 | 全 |
|---|---|---|---|
| 충성 충 | 효도 효 | 쌍 쌍 | 온전할 전 |

충성과 효도를 모두 겸하여 갖추고 있음.

[제공=한국효문화진흥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 '해양수산 창업 투자' 선정 기업 밀착 지원

## 道, 충남TP 통해 지원사업 추진…4차 선정기업 8개사와 협약 체결

충남도는 25일부터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4차 선정기업 8개사를 차례로 찾아 업무협약을 맺고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은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예비 창업자와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국비 50%와 도비 50%를 투입해 지원하고 충남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수행한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4차 선정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돕고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보령, 서천, 홍성, 서산 4개 시군의 중소·영세기업 8개 업체다.

세부 지원 내용은 ▲디자인 브랜드 개발 4건 ▲비대면 판매 활성화 4건이다.

도는 국내외 비대면 홍보·판매 지원을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블로거 체험단 홍보 등 비대면 사업을 발굴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국내외 판매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위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과 화상 수출상담회를 열어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베트남 온라인몰 입점·판매 지원을 통한 수출인증 취득 등 수출 및 온라인 시장 진출도 돕는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남테크노파크 누리집(www.ctp.or.kr)의 공지사항 또는 도와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앞으로도 국내외 판로 개척, 수출 활성화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6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에 4차 선정기업 포함 총 57개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 청양지역 마을기업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

청양군 '새울길영농조합법인'(대표 신명숙)이 충남도가 주관하는 2021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이달부터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콩나물이 관내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새울길영농조합법인은 정산면 내초리(이장 김선호)에 자리하고 있으며, 성장촉진제나 방부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으로 콩나물을 생산하는 마을기업이다.

2016년 3월 마을 주민 20여 명이 출자해 마을기업 '새울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이후 두부, 된장, 청국장 제품 판매에 이어 2018년 군 공모사업에 선정돼 콩나물공장 사업체를 꾸렸다.

지역 농산물인 콩나물콩을 원료로 특허 등록된 발효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 방식으로 콩나물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모든 원료를 관내 원료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청양군은 지역 우수 식재료의 학교공급 확대를 통해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정착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소비 순환 체계 기반 마련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인식 등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사업은 학생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와 판매자에게는 희망을 주는 지역 순환 식품 체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군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된 콩나물, 두부 등을 학교급식에 확대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홍성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을별 교육

홍성군은 25일 농업인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개선과 활동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장곡면 도산2리, 홍동면 문산마을, 동곡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 제거하기, 오염된 하천·저수지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 등 개인별 활동과 공동 활동을 시행하여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교육은 지역활성화센터 김재원 팀장이 맡은 가운데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친환경 농업 확산기반 조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농업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마을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활동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교육은 오는 11월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주제로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준공

## 태안군, 16억 2500만 투입 연면적 750㎡ 지상 2층 규모

태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태안 농공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 앞장섰다.

군은 지난 24일 태안읍 삭선리에 위치한 태안 농공단지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신경철 군의회 의장, 오영길 태안농공단지 협의회장, 농공단지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숙사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숙사 조성은 24개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200여 내·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것으로, 군은 총 사업비 16억 2500만 원을 투입 지난해 9월부터 태안농공단지 부지 내에 연면적 750㎡(지상 2층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 했다.

이날 준공된 기숙사는 16실 규모로 31명이 생활할 수 있으며, 군은 태안 농공단지 입주협의회에 관리를 위탁해 근로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태안 농공단지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공단지를 비롯한 태안지역 기업들이 불편함 없이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 농공단지는 지역 기업들의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해 태안읍 삭선리 일원 약 10만㎡ 면적에 지난 1994년 조성됐으며, 올해 현재 24개 기업이 입주해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 예산군, 8명에 12억9000만원 지원

예산군 농업 기술센터는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총 8명에게 12억9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업 기술센터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했다.

이후 8월 3일까지 신청자에 대해 농업창업 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면접평가를 거쳐 귀농창업에 대한 계획과 영농정착 의욕이 우수한 순서대로 융자사업자 8명을 최종 확정했다.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며, 신용 및 담보 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 보전사업이다.

대출 금리는 연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하며, 세대 당 대출 한도는 농업 창업 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농업 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4명의 귀농 농업창업자금 149억1200만원과 주택자금 23명 11억6000만원이 융자 지원돼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큰 보탬이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기자

# 당진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내 어린이집 방문교육 실시

## 코로나19 상황 감안·교육효과 높이기 위해 자료 직접 제작

당진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당진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활동하면서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1·2차에 걸쳐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돼 운영되며 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가 낮았던 점을 고려해 올해는 대면·비대면 교육을 동시에 진행한다.

올해 어린이집 방문교육은 '해나·나루와 함께하는 올바른 칫솔질! 칫솔 들고 치카포카!>'와 '해나·나루와 함께하는 콩 프로젝트 <꿈을 꾸는 킹콩>'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대면 교육에 부담감을 가지는 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는데, 자료의 제작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교육을 통해 손인형극을 직접 배워 촬영, 편집, 녹음 등 모든 작업을 센터에서 직접 작업 중에 있다.

현재 '꿈을 꾸는 킹콩'의 비대면 교육 자료가 완성돼 본 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청이 가능하며, '333 올바른 칫솔질! 칫솔 들고 치카포카!'의 비대면 교육 자료는 제작 중에 있다.

한편 당진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 6월 개소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총 170개 기관의 7,000여 명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집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느끼는 국립자연휴양림

## 유튜브 활용 「집콕 휴양림 문화 프로그램」 생방송 운영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및 대내외 활동 위축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26일부터 「집콕 휴양림 문화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집콕 휴양림 문화 프로그램」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휴양림에 근무하는 산림복지전문가가 평소 대면으로 진행하던 숲해설이나 목공예체험 활동을 국립자연휴양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9월에 처음 시작해 금년 7월까지 총 54회 진행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국립자연휴양림"을 검색하면 기존에 운영한 다양한 휴양림 동영상을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운영되는 「집콕 휴양림 문화 프로그램」은 26일을 시작으로 12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국립자연휴양림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으며, 휴양림 사정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숲나들e 누리집(http://foresttrip.go.kr)의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이영록 소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국민이 국립자연휴양림의 「집콕 휴양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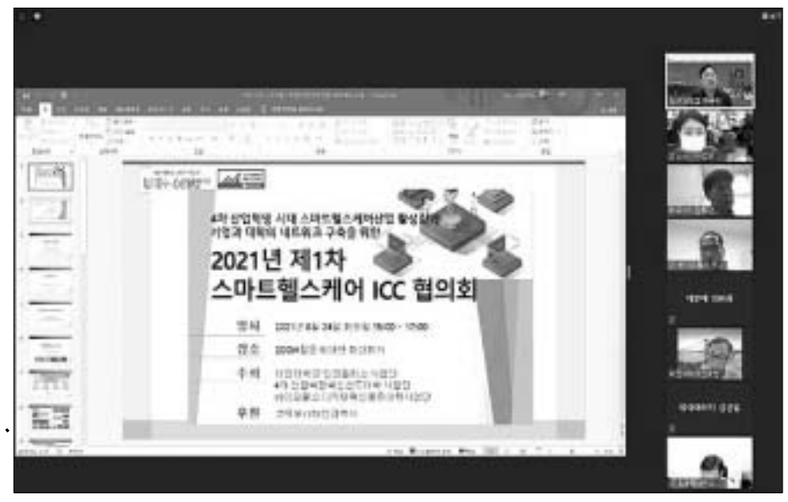
송병배기자

### 조폐공사-장흥군과 '카드형'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 업무협약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 www.komsco.com)가 장흥군과 손잡고 카드형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을 선보인다. 조폐공사는 25일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과 '카드형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 대전대학교 LINC+사업단 '제1차 스마트헬스케어 ICC 협의회' 열려




대전대학교(총장 윤여표) LINC+사업단(단장 이영환)은 24일 '제1차 스마트헬스케어 ICC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사업단 안요찬 단장 ▲스마트헬스케어ICC협의회 민병호 회장(㈜메디아이젠트 대표) 등 대학 및 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행사는 현재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 소개를 비롯, 기업 수요에 맞춘 ▲빅데이터 ▲AI ▲IoT ▲디지털헬스케어 ▲메타버스 분야의 재직자 교육에 대한 홍보와 참여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개발, 신사업 개발 등의 사례를 통한 헬스케어 업계에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SSMI 박해정 대표 특강으로 백미를 장식했다.

행사를 주관한 안요찬 단장은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대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고 이에 대전대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선도대학사업과 디지털공유대학은 큰 의미가 있다.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 교육을 위해 현장 경험이 있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고, 대학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간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동정

### 현장방문

오세현 아산시장=26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멘토-멘티 만남의 날, 오후 2시 30분 인주면에서 열리는 하이넷 아산인주 수소충전소 개시 현장방문에 참석.

### 착수보고회

김홍장 당진시장 = 26일 오후 1시 30분 당진시청 목민홀에서 개최되는 합덕제 중장기 개발 기본구상 수립 착수보고회에 참석.

### 간담회

가세로 태안군수=26일 오전 10시 태안군의회 간담회실에서 열리는 태안군의회 의원 간담회에 참석.

### 보고회

김돈곤 청양군수=26일 오후 3시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청양군 시책구상 보고회에 참석.

### 온양4동 '찾동 사업' 상반기 방문 완료

아산시 온양4동(동장 이동순)은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찾동(찾아가는 동장)이 갑니다'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여 온양4동 26개 마을을 방문했다.

본 사업은 '현장에서 답을 찾자'라는 시정철학으로 동장이 관내 마을을 방문을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과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해결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시행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아산시 현안사항 안내,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이 이루어 졌으며 특히 주민 요구사항을 57건 접수했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주민 요구사항 중 자연부락과 구시가지로 구성된 온양4동의 지리적 특성상 교통, 환경, 시설 보강 등 사회 인프라 개선 요구가 가장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 마을은 공통적으로 주차장 부족에 대한 개선을 원했다.

접수된 주민 요구 사항 중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 완료했고, 타 실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2022년 예산편성에도 반영 할 예정이다.

이동순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마을 주민과 스스럼없이 대화함으로써 마을의 속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고 주민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반기 찾동 방문은 상반기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과 시 동정에 대한 홍보사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실시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 읍면 특화전략사업 지역발전 견인

## 태안군, 지역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지역발전사업 27건 발굴

태안군은 읍면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과 군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읍면 특화전략사업 27건을 발굴했다.

군은 25일 군청 대강당에서 가세로 군수 주재로, "읍면 특화전략사업 발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7월 29일 위촉된 32명의 읍면별 특화전략발굴 위원들이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지역의 곳곳을 누비며 개발했던 특화전략사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제안된 특화전략사업은 읍면장이 주관이 되어, 전문가 의견청취, 대표 지역주민과 군의원 등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은 후에 자체 토론회를 거쳐 최종 3건 내외로 간추려 보고했다.

제안된 특화사업은 태안읍은 "태안읍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3개 사업", 안면읍은 "굴 특화단지 조성 등 3개 사업", 고남면은 "영목항 전망대 해안도로 및 웰컴 꽃길 조성 등 3개 사업", 남면은 "몽산포 해수욕장 해송수목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근흥면은 "안흥진성 화포축제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 소원면은 "해수욕장 모래사장 청소장비 구입 등 5개 사업", 원북면은 "원북면 다기능 중앙광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이원면은 "만대권역 관문사업 등 5개 사업" 총 27개다.

군은 제안된 27개 사업은 부서별로 사업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보고회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한 후에 2022년도 본예산 등에 반영해 지역발전의 촉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본 특화전략보고회는 행정의 경험이 풍부한 읍면장이 직접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전문성 높은 전문가의 생각 그리고 지역주민의 바람을 한데 녹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전략사업을 발굴 했다는데 의의가 높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일구기 위해선,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 전문가의 멋진 색채를 입혀 새롭게 대안을 구축하는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실시

## 당진새일센터, 양육부담 완화 일환 여성 구직자와 자녀 큰 호응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방학기간 동안 자녀들이 사회활동 제약 속에서 느낄 답답함을 해소하고 양육부담 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자녀와 함께하는 힐링 플라워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주된 내용은 자녀와 함께 나를 주제로 동화책을 읽어 주며 자존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주체적인 나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지금 생활에 대해 위안을 갖고 꽃이라는 공통 소재를 통해 엄마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작년 직업교육훈련 플로리스트 강사 양성과정으로 배출된 '꽃 모아 협동조합' 강사의 진행으로 이뤄졌으며, 프로그램에 제공된 꽃들은 당진지역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것들을 연계해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지역 농산품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당진=최근수기자

# 아산시 빅데이터 분야의 허브로 도약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5일, ㈜메타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메타인프라는 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내 7,023㎡ 부지에 1,5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2023년까지 50명의 신규 고용(간접 고용 포함 250여 명)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 분석해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하는 핵심 인프라다. 매년 증가하는 데이터 생산량과 함께 국내·외 빅데이터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며 이미 글로벌기업 및 국내 대기업들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있다.

아산시는 수도권 및 전국 어디로든 연결되는 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지방도 등을 갖춘 최적의 교통과 산업의 요충지로 이번 중부권 최초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해 충남·북 등 전국의 제조 기업체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충남 및 지자체 디지털 관련 정책 협업, 도내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AI 전문인력 계발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 빅데이터 허브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오세현 시장은 "우리 아산시에 처음으로 데이터센터가 설립될 수 있게 과감한 투자를 해주신 ㈜메타인프라 대표님 및 임직원들에게 34만 아산시민과 함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준공과 함께 데이터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태안군 해양치유산업 행양치유대표 브랜드 선정

서해안권 유일의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인 태안군이 해양치유산업 대표도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태안군은 '2021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대상'에서 태안군이 해양치유산업 대표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JTBC가 후원하는 브랜드대상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브랜드별 성과 및 비전 ▲인지도 및 서비스 만족도 ▲브랜드 경쟁력 및 고객 신뢰도 ▲브랜드 미래가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태안군은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을 보유하고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태안군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남면 달산포 일원에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8570㎡ 규모의 '태안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최근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첫삽을 뜰 계획이다.

특히, 태안군이 보유한 28개의 해수욕장과 도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피트, 소금, 머드, 모래 등 다량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 태안의 미래 백년을 열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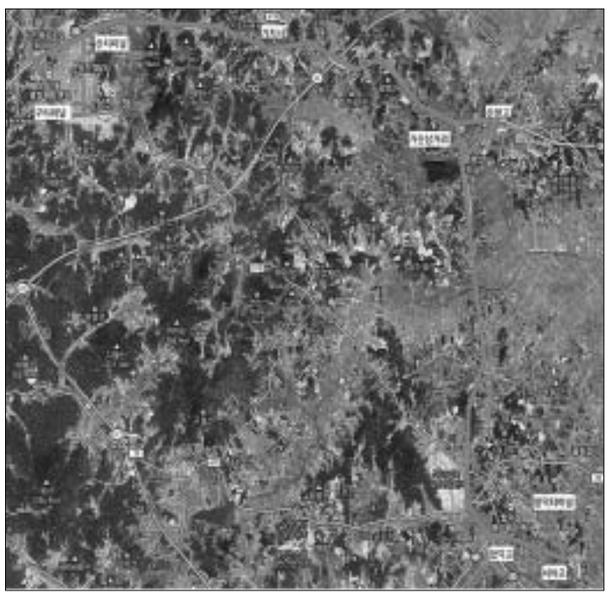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협력으로 피트와 갯벌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군 해양치유자원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고 올해 의학적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및 해양치유전문 보조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태안군의 특성화 해양치유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과학적 데이터 축적에 나서는 등 성공적인 치유센터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 군수는 "태안 해양치유센터가 조성되면 64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태안군이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 역량을 총동원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 통학생을 위한 급행버스 운행

## 당진시, 9월부터 당진-신평-합덕 구간 첫 운행

당진시가 그동안 시내권이나 외곽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최고 56개의 정류장을 거치는 버스를 약 1시간가량 탑승 후 다시 한번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처음 급행버스인 당진-합덕 간 구간을 운행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운행하게 될 급행버스는 당진-신평-합덕 구간으로 승객이 많은 주요 7개 정류장에만 정차해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최대 약 35분 단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스 운행시간은 등교 시간인 오전 7시 30분 구터미널을 출발해 신터미널-기지시-거산리-신평고-합덕고-서야고로 운행하며, 오후에는 오후 5시 서야고를 출발해 당진에 도착하는 32㎞ 구간이다.

이 구간의 운행은 오래전부터 요구돼왔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당진여객, 당진시의회, 당진시가 협의해 시범 운행하게 됐으며, 버스 요금은 일반 1,600원, 청소년 1,280원이며 당진시 무상 교통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당진=최근수기자

# 청양군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24일 동영중학교(남양면 소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했다.

충남도립대와 협업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군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전접수를 받았으며, 동영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청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공정무역과 사회적 책임, 착한소비 ▲사회적경제의 국내외 사례 ▲청소년 사회적경제 공모전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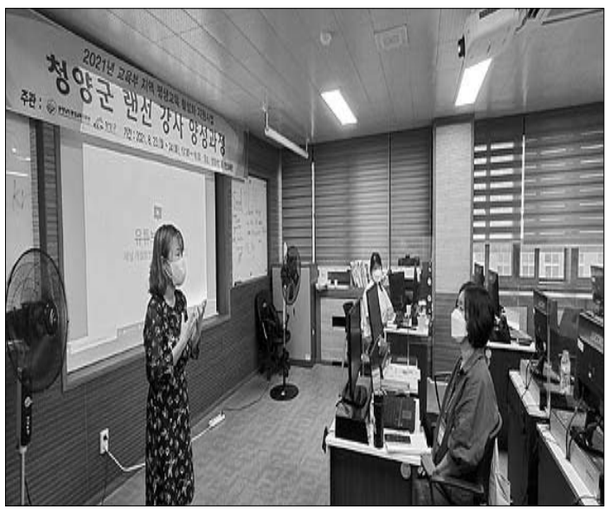
특히 이번 교육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기업사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도와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및 혁신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 지역 자원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군은 지난해 8월 청양고등학교 특성화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2회 차에 걸쳐 진행하여 긍정적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 여러분의 진로 탐색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고민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 랜선(온라인) 강사 양성과정 운영**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23일과 24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군내 평생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랜선(온라인)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교사와 강사 12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은 ▲유튜브 채널 구축과 운영 방법 ▲미디어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이론 및 실습을 병행했으며, 우수교육생에게는 BCPF콘텐츠학교 스튜디오 장비를 활용한 개인 콘텐츠 제작 지원(스튜디오 시설, 스튜디오 멘토 교육)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평생학습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 남녀통합 숙직근무 시범운영 시행

### 계룡시, 당직근무 주기 격차 해소 · 양성평등 공직분위기 조성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남녀 직원간 당직근무 주기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의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오는 9월부터 남녀직원 통합 숙직근무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숙직은 야간 민원처리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밤을 새워 일하는 근무형태로 현재 남성직원들이 전담하고 있으며, 남녀가 동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여성직원의 숙직 동참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앞서 지난 3월 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현행 당직근무 만족도 및 여직원 숙직 찬성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4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44%가 현행 당직근무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65%가 여직원 숙직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여직원 2명・남직원 1명으로 구성하여 주 1회 숙직근무를 시범운영 후 직원 의견청취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내년 초에 전면시행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시 남녀직원 혼합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민원현장대응을 하고자 하며, 여성과 남성 휴게공간 분리 및 편의물품 구비 등 당직근무 시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계룡=주선웅기자

##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여군, 자율적인 환경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환경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하반기 동안 환경문제 해결을 주제로 운영된다. 환경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해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등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는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성인에게는 기후변화 등 환경현안 특강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7월부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3개소,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3개소 신청을 받았으며,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부여군청 환경과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쓰레기 배출, 물 절약 등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 방법부터 기후변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현안에 이르기까지 희망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부여=김성구기자

## 엄사면 희망저금통 모금 시작

### 계룡시, 24시간 소액기부 가능한 희망저금통 운영

계룡시 엄사면(면장 임경희)은 엄사면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희망저금통' 운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희망저금통은 계룡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안에 따라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출입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책이다.

희망우체통에 기부를 희망하는 자는 24시간 언제든지 기부가 가능하며, 희망저금통은 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사연을 전달하기 위한 '희망우체통'과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단, 희망우체통이 4곳에 설치된 것과 달리 희망저금통은 보안 등의 문제로 인해 CCTV가 설치된 엄사면사무소 앞의 희망우체통만 희망저금통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엄사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 해소를 위한 희망우체통을 행정복지센터, 성원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버스정류장, 삼진 아파트 출입 등 총 4곳에 설치 · 운영하고 있다.

# 지속가능 관광도시 이끌 컨트롤타워 만들어

## 논산문화관광재단 출범 · 사람과 문화 ·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관광도시 만들 것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이끌 컨트롤타워, 논산 문화관광재단 출범

논산문화관광재단 출범, 사람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관광도시 만들 것

선사인랜드, 탑정호 출렁다리 등 수많은 관광자원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를 바탕으로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논산의 미래관광을 이끌어갈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논산의 미래를 이끌 관광산업의 발전과 명품 관광도시로의 혁신적 도약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약속했다.

이번 총회에는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권경주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대표이사, 권선옥 논산문화원장, 김종욱 아이맘스튜디오 대표, 박종민 前 나르샤국악실내악단 대표, 유병훈 前논산시 부시장, 윤재림 前 쌘뽈고등학교 교감, 주명복 세무법인 송촌 대표, 지진호 건양대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선5기 취임 당시부터 더 나은 시민의 삶과 논산의 미래 100년을 이끌 핵심 사업으로 문화관광 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며 "그 결과 논산시는 선사인랜드, 탑정호 출렁다리, 밀리터리 파크 등 논산만이 선보일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은 논산의 관광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 큰 발전을 이끌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논산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논산문화관광재단은 문화 · 관광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와 시대적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선도적인 관광콘텐츠를 발굴, 논산의 특색있는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문화 · 관광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물론 관광사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향후 문화관광재단을 통해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복원,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 관광사업, 연산면 폐교 활용 문화학교 사업 등 시에서 역점을 두고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이 한층 풍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 · 발전 시키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010모바일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안에 관계기관에 재단 설립허가와 설립등기 신청을 마무리하고, 재단 예산 · 회계 ·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2022년 1월 재단을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 서천군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반려해변 지정 추진

### 건강한 해양환경보전 활동, 5개 기업 참여하여 상시 청결 유지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한국중 부발전(주) 신서천발전본부를 비롯한 5개 기업 등과 협의를 마치고 반려해변을 지정해 해변정화활동을 펼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히,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이 진행 중인 마서면 송석항을 중심으로 한 갈목해변과 장항읍 송림리 바닷가를 반려해변으로 지정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여 기업은 한솔제지(주) 장항공장(송림해변), 한국중부발전(주) 신서천발전본부(춘장대해수욕장), ㈜베르상스퍼시픽 장항공장(송석갈목해변), 파이코일바이오텍코리아(주)(선도리 해변),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비인 해변)등 4개 기업과 1개 재단이다.

반려해변 사업은 미국의 '고속도로 입양(Adopt A Highway)' 및 '해변입양(Adopt A Beach)'에서 유래했으며, 참여기관이 반려동물을 보살피듯이 특정해변을 정하여 내 가족처럼 여기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는 활동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21년부터 '반려해변'이라는 명칭으로 해변 입양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어 서천군도 참여하게 됐다.

노박래 군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를 늘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동참해 모두 함께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여 정림사지박물관에서 살아있는 백제를 만나다

### 최첨단 ICT 기술로 재탄생…실감형 콘텐츠로 관광객에게 성큼 다가가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새롭게 단장한 정림사지박물관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림사지박물관은 정림사지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첨단 ICT(Information ·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전시관은 기존 3개 관에서 정림사지관과 백제불교역사관 2개 관으로 개편됐다.

정림사지관에서는 역사를 조명한 명문 기와를 시작으로 무한으로 펼쳐진 공간(인피니티룸) 안에서 정림사지 출토 유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복합 라이팅 쇼와 스마트폰 앱, 탭 대여를 통해 AR(증강현실) 체험으로 즐길 수 있다.

인피니티룸을 나와 발굴조사 보고서 컨텐츠를 즐기고 나면 석탑 모형이 들어 있는 대형 유리 진열장을 마주하게 된다. 진열장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컨텐츠 영상은 정림사지5층석탑의 축조 과정과 비례미를 보여준다. 그 옛날 백제인들이 미(美)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5층석탑이 과학적인 설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림사지 출토 유물에 얽힌 이야기 등이 다양한 콘텐츠로 전시돼 있다.

백제불교역사관에는 백제불교의 유래와 전파, 사비백제의 가람배치와 사찰 분포도를 체험할 수 있고, 사비백제 6대 왕이 들려주는 백제불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특히 VR 기기 없이 360도 초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사비연화 360 스피어 영상관이 큰 인기다. 영상관은 '부여 10경' 영상과 애니메이션 '기억의 저편', '포토타임'으로 구성됐다. 영상 1회당 수용인원은 14명이며, 매시간 정각 · 20분 · 40분에 시작돼 약 15분간 상영한다. 소녀와 소년의 시공을 초월한 만남을 통해 정림사지가 들려주고픈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상 '기억의 저편'은 판타지 스토리로 흥미로움을 선사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응이 좋다.

박물관을 찾은 한 초등생 학부모는 "단순한 관람은 지루할 수 있는데 앱으로 하는 AR체험이나 만화 같은 영상 볼거리가 있으니까 아이들과 같이 오길 잘한 것 같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뿌듯하다"고 관람 소감을 전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정림사지박물관 백제역사체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앞으로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여군 종교시설에 방역물품과 안심콜 지원

부여군(박정현 군수)은 관내 종교시설 287개소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과 안심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이달 22일까지 이어진 이번 지원은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온 종교시설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군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온측정 자동손소독기와 리필용소독액, 출입자 관리를 위한 안심콜 전화번호를 지원했다.

박정현 군수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종교계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안전한 종교활동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종교계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동 정**

**청렴 라이브 교육**

노박래 서천군수=26일 오전 8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362회 서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 오전 10시 군청 상황실에서 서천군 자치분권협의회 워크숍 참석, 오후 1시 40분 서천군문예의전당에서 열리는 청렴 라이브 교육에 참석.

**정책소통마당**

박정현 부여군수=26일 오후 2시 부여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정책소통마당에 참석.

**서천군 흰불나방 등 산림병해충 방제 총력**

충남 서천군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각종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산림 병해충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이상 기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병해충의 발생시기가 빨라지고 돌발 병해충 발생이 급증해 수목의 병해충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공원, 가로수에 대해 3차에 걸쳐 긴급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돌발해충방제단 5명, 예찰방제단 3명 등을 활용해 생활권과 가까운 임야, 농림지 주변, 주요 도로변의 산림공원, 관공서 녹지공간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흰불나방, 선녀벌레, 버즘나무 방패벌레 등 병해충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와 예찰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돌발해충방제를 위하여 평판트랩 1만2000매와 약제를 산림인근 농가에 배부를 완료하고 적기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신동순 산림축산과장은 "예방 차원의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시행해 수목의 건강한 생육과 쾌적한 주민 생활을 도모할 방침이다"며 "주민들도 병해충 유충 발견 시에는 군청 산림축산과나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신속한 병해충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김태선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산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 동 정

### 온라인 소통 · 공간 한마당

김정섭 공주시장=26일 오후 3시 1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 · 공간 한마당에 참석.

### 어르신 자서전 쓰기 발표회

김동일 보령시장=26일 오전 11시 30분 효나눔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어르신 자서전 쓰기 발표회, 오후 2시 남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오후 2시 30분 미산면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 관광시설 둘러보는 날을 운영.

### 도의원 초청 간담회

맹정호 서산시장=26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도의원 초청 간담회 참석,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산산단 종합안전진단 용역 자문회의 참석, 오후 3시 30분 서산시민센터에서 열리는 마을기자단 양성교육 수료식 참석.

### 제428주기 이치대첩제

문정우 금산군수=26일 오전 9시 30분 진산면 북산리에서 열리는 제428주기 이치대첩제에 참석.

## 공주시 농업인 전문 경영교육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4일 관내 희망 농업인 및 예비 귀농 ·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농업의 산업화, 규모화에 따라 농업인에게도 나날이 수준 높은 전문 경영 능력이 요구되면서 농업노무, 농지교육, 농업세무, 농업인 특허, 온라인 마케팅 등의 전문 경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동법 관계와 경영주로서의 노무 실무를 주제로 대유노무법인의 유예린 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평소 농업 인력을 고용함에 있어 꼭 필요하지만 어렵게만 느껴졌을 노동법의 개념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임금 지급방식 등에 대해 쉽고 자세히 전달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희영 농촌진흥과장은 "시대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농업도 전문화, 과학화, 규모화 되어가고 있다. 트렌드를 읽는 교육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에 이어 9월 3일 농지 전문가, 9월 29~30일에는 유튜브 마케팅, 10월 중 농업 세무지식, 농업인 특허 과정 등 전문 경영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교육 문의 및 신청은 041-840-8686으로 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

# 보령시 대단위 행사 성공적 마무리

보령시가 코로나19 전국적인 위기속에 최근 치른 각종 대회 및 행사 등이 확진자 한명 없는 성공적인 대회로 치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 여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천여명을 넘나드는 위기속에 제24회 온앤오프 보령머드축제, 2021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만세보령머드 JS CUP U12&11 한국유소년축구대회 등 대단위 각종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특히, 보령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입체적이고 보다 촘촘한 방역시스템으로 참가자 중 단 한명의 확진자 발생 없이 행사를 마무리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7월 23일부터 8월1일까지 온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개최된 제24회 보령머드축제는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기존 계획했던 다중 밀집 행사를 취소하고 행사장 이용객 발열 체크 및 체온스티커 배부, 행사공간 수시 방역 및 소독 시행, 간편전화 출입명부 콜체크인 실시 등 체계적인 방역 속에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2021 만세보령머드 JS CUP U12&U11 한국유소년축구대회'도 모든 선수와 임원 대상 대회 참가 72시간 전 PCR검사를 완료하고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 팀 간 접촉을 최소화했다.

더욱이 보령머드축제 3000여명, 보령국제요트대회 250여명, JS CUP U12&11 한국유소년축구대회 400여명 등 4천여명과 대천해수욕장 피서객 281만여명이 올 여름 보령을 다녀갔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건 · 사고 하나 없는 안전한 보령시의 명성을 알렸다.

시는 이처럼 코로나19 위기속에 각종 대회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발판으로 오는 11월 개최될 2021 보령해저터널 마라톤 대회와 1년 앞으로 다가온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2022충청남도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 22일 폐장한 대천해수욕장이 개장기간인 지난 7월3일부터 8월22일까지 51일간 단 한건의 인명사고 없이 성공리에 해수욕장 운영을 마무리 하면서 3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화도 달성했다.

김태선 기자

# 서산시,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 30일 오픈

### 전국 최저 수준 1.7% 수수료 적용 · 모바일 지역상품권 이용가능

서산시가 오는 30일부터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을 정식 오픈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소문난 샵'은 충청남도와 민 · 관 협력한 사업으로 계룡시에 이어 도내 두 번째 오픈이다.

시중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줄이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문난 샵은 10~18%에 달하는 시중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전국 최저 수준인 1.7%로 낮췄다.

이용편의를 위해 모바일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 수수료(0.8%)도 사라져 0.9%의 주문 수수료로만 발생한다.

소비자 역시 지역상품권 이용 시 상시 6%, 특별 1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쿠폰 등의 혜택도 받는데, 오픈 이벤트로 만오천 원 이상 첫 주문 시 오천 원을 자동 할인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다.

첫 주문 시 9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3천원, 2천원 할인 쿠폰 2장도 선착순 1000명에게 준다.

가맹점 신청은 시 일자리경제과(☎660-2180) 또는 '소문난 샵' 콜센터(☎070-4866-1341)로 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배달앱 운영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게 됐다"며, "모바일 온통서산사랑상품권도 이용 가능해 시민들의 편의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등록된 관내 가맹점은 530여개소로 시는 연말까지 가맹점 모집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서산=김정한기자

# 금산군,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본격화

### 홍보 영상 제작 · 유튜브 · 라이브커머스 등 매체 활용 마케팅

금산군은 금산인삼 해외 경쟁력 제고 및 인삼 시장 활성화 기여를 위해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0년 기준 인삼류 수출액 2104만 달러를 오는 2025년 4400만 달러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급성장하는 유튜브, 라이브커머스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구상했다.

올해 6월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 30억5000만 원을 투입해 해외 5개국을 대상으로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한다.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 프랑스, 캄보디아 등 수출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를 포함해 규모 확대를 꾀했다.

군은 오는 8월 말까지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국가별로 언어 자막을 제작해 유튜브 광고 및 미디어 홍보 서포터즈 운영에 나설 계획이며 오는 11월 말까지 나라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금홍, G마크 승인 제품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중이며 서포터즈 유학생 및 나라별 인플루언서 섭외, 홍보 영상 제작, 아마존 · 타오바오 등 해외 쇼핑몰 입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이후 연차별로 광고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상황에 맞는 마케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금산인삼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산애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TV광고 등 전통적인 방법에서 더 나아가 급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 매체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 보령시, 하반기 신속 집행 총력… 9304억원 목표

보령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예산 현액 1조946억원의 85%인 9304억원을 하반기 집행 목표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 · 투자사업의 집중관리로 주민체감 효과 극대화, 월별 균형집행으로 예산 집행의 연말 편중 방지, 국가추경 반영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추경성립 전 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금 지급상한 최대 80%까지 확대, 긴급입찰과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절차 단축과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신속 정리해 긴급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고효열 부시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매일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부진부서, 부진사업에 대한 맞춤형 1:1 집행관리를 통해 문제점 등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월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대규모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선금 · 기성금 · 관급자재 선고지를 적극 활용하여 이월 · 불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기 반등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우/리/동/네

### 강북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 공주시 월송동 마을발전 토론회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4일 월송동에서 마을발전 토론회를 열고 강북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등을 놓고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연숙 월송동 주민자치 부회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4월 개관한 강북생활문화센터가 다양한 주민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확충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인옥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장은 전통 계승과 역사문화도시에 부응할 수 있는 판소리나 민요교실, 단소 연주반 등 전통음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했다.

김종분 월송동 자원봉사거점센터장은 음악 공연이나 영화 상영 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야간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명화 주미자치회 자치분과장은 젊은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말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을, 오영훈 주민자치회 간사는 강북생활문화센터를 활용해 월송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며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문 시민자치국장은 강북평생학습센터의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10개 과정 편성했다며 앞으로 주민자치와 학교, 마을학교 협력을 위해 강북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지역과제 해결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석광 문화복지국장은 주말 특강 수업, 영화 상영에 더해 음악과 미술 등 융복합 프로그램 추진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하고 젊은 부부들의 육아 부담 감소를 위한 주말 어린이 프로그램도 시행할 뜻을 내비쳤다.

김정섭 시장은 "강북생활문화센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등 크게 3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배움의 공간"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집약해서 건의해 주시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희 금흥6통장은 두 번째 안건인 소공원 활용도 증대 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소공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박상용 월송동 기관단체협의회 간사는 월송 시내 지역에 소공원 7개가 있는데 벤처 그늘막이 없다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덕 금흥7통장은 흥화 하브 앞 소공원에서는 월송동 직거래장터가 열리는데 주민 반응이 매우 좋다며 정자 등 쉼터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태 경제도시국장은 주민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폭염 저감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흥화 하브 앞 쉼터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가 연결녹지 구간으로 그 기능을 살리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월송동은 공주 미래의 상징적인 곳으로 세종시와의 다양한 상생발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라며 "송선 · 동현 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기대감 못지않게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도 계신데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서산시 대산읍 대로~독곶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출퇴근 시간에 교통지옥이라 불리는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서 독곶리까지 왕복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 된다.

독곶리에는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엘지. 등 화학공장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등 수천명이 같은 시간에 출근 퇴근는 과정에 교통이 혼잡해 4.31k구간을 통과 시간이 40분이상 걸리는 곳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서산 대산 독곶 ~ 대로」가 기획재정부의 '제5차 국도 ·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지난 24일 기재부는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대상사업을 심의 · 의결했다.

이구간 확포장 사업은 국도 38호선인 대산읍 독곶 교차로에서 명지사거리까지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4.31km며, 약 522억 원이 소요된다.

4차선으로 확장되면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공단의 물류비용 절감 등 대산지역 교통난 해소 및 기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성과는 시가 민선7기 들어 사통팔달의 도로길 확충을 위해 충남도 및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예타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을 9월 중 확정 · 고시하고 순차적으로 국비를 투입하게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예타 통과는 대산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및 공단 물류비용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 순천향대, 현지 스타트업 지원체계 및 생태계 기반 구축 위한

#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역량 강화사업 조사단 파견

순천향대(총장 김승우) 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유병욱)가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 역량강화사업' PMC 용역 수행기관으로서 현지 스타트업 지원체계 및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착수조사단을 파견하며 사업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위탁받은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 역량강화사업'은 순천향대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주관기관으로, 대신통신기술(대표 김지영)이 파트너 협력사로 참여하여 수도 타슈켄트를 대상지역으로 스타트업 범정부 간 통합 제도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업저변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24년 7월까지 진행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스타트업 관련 법·제도 구축 기반조성 ▲스타트업 생태계 자료 수집 및 현황 분석 ▲스타트업 지원센터(SSC:Startup Support Center) 설립 ▲스타트업 교육·행사 콘텐츠 개발 ▲스타트업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 실시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유지보수 등이다.

센터는 25일부터 서창수 교수를 단장으로,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현지착수조사단을 파견하여 KOICA, 우즈베키스탄 정부,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현지 창업지원기관, 창업희망자 등의 다양한 유관기관 및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우즈베키스탄 현지 창업생태계 지원을 위한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사업 책임자인 서창수 교수(창업지원단장)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능력 있는 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며, '특히 이번 착수조사를 통해 현지 현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욱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순천향대학교는 기존 에콰도르 야차이 창업지원 및 기술이전센터 건립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창업 촉진 관련 사업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기존의 경험을 살려 우즈베키스탄에 풍부한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는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전문가 역량강화사업 ▲개도국 개발협력 인재 양성사업 ▲우즈베키스탄의 기술기반 창업촉진센터 역량강화사업 ▲이종욱 펠로우십 학위과정 등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덕구-한남대, 체육시설개방 업무협약**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와 한남대학교는 25일 한남대학교 대회의실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선 사업 지원 및 체육사설개방업무협약을 맺었다.

**송악면 행복키움, 물품 나눔 행사 개최** 아산시 송악면(면장 김영진)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손준배)이 지난 24일,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 공주시,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간담회

###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상황 공유 및 지역 관계자 의견 청취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지역 미술 발전 및 시민들의 미술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지역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정섭 시장과 지역 미술작가, 문화예술기관·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 및 진행상황공유,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현영 공주시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미술관 건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성공적인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대상지 선정,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미술분야 학예연구사 채용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현재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에 대한 문체부 심의 중으로, 시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체부 사전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부지 매입 등 각종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하여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지역 미술 발전 및 시민들의 미술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주시립미술관은 공주시 웅진동 공주문화관광지 사업구역 내에 연면적 2,92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주=정상범기자

## 백석대, 중년층 위한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24일 충남도청이 발표한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학의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이다.

이번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백석대학교는 100세 시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만 50세~65세)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및 건강유지 ▲여가문화 증진활동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과 상담 ▲재취업알선 ▲커뮤니티 등 성공적 노후 설계 관련 종합적인 지원을 맡게 된다.

백석대 지역사업협력단 최선기 단장은 "우리 대학의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노력해 준 결실"이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가치를, 지역사회와 신중년들에게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지역에 보탬이 되는 지역대학으로 한발 더 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별히 백석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은퇴한 신중년들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자리 발굴 및 알선, 취업훈련, 인생 재설계 교육, 직업능력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천안=이정복기자

## 충남대,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충남대학교는 25일,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졸업식 대신 유튜브 동영상으로 대체했다.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으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학사보고, 학위수여식사, 외빈 축사, 졸업생 인사,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번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1,065명, 석사 517명, 박사 112명 등 총 1,694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정복기자

## 오비맥주 '스타트업 데모데이'

### 유망 스타트업과 동반성장 기회 모색

오비맥주(대표 배하준)가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최종 우수업체로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라피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라피끄에게 2천만원 상금 및 1천만원 사업화 지원금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는 "오비맥주는 국내 주류 산업 선도기업으로서 혁신성과 역량을 지닌 스타트업들과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며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들과 실질적인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오비맥주 나탈리 보르헤스 구매 부문 부사장, 라피끄 이범주대표, 오비맥주 배하준대표가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소통지도사'에게 맡겨주세요

###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명칭 '농어촌소통지도사'로 변경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8월19일부터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명칭을 '농어촌소통지도사'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명칭은 농어촌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퍼실리테이터)로 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공사는 외래어로 된 자격명칭을 농어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된 자격명칭 변경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결과를 토대로 자격소지자(258명)의 선호도 조사 및 국립국어원의 정책용어 자문을 거쳐, 농식품부 등 내·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자격 명칭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농어촌소통지도사'는 농어촌 현안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의 관계자 간 소통을 유도하고, 의견을 중재·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농어촌소통지도사'는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기법과 도구를 활용하여 마을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위한 현장포럼, 워크숍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문가로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258명이 배출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의 예비·기본계획 수립, 역량강화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농어촌소통지도사' 양성교육 수료자는 53명으로, 자격검정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거쳐 오는 10월경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양성교육, 자격검정 등 자격취득과 관련된 세부일정은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사이버홍보(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합격자들은 자격취득 이후 농어촌의 여건 및 전망, 정부 정책방향의 변화 등과 관련된 보수교육 및 고도화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보충한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자격명칭 변경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어, 농어촌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개발 전문 인력을 지속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 예산군, 양성평등주간 기념 '예산군 여성대회' 개최

예산군은 양성 평등 주간 기념을 맞아 오는 9월 3일 군청 추사홀에서 '제26회 예산군 여성 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행사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한 문화조성 및 여성 친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다.

예산군 여성 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3단계 조치상황에 따라 '함께하는 성평등, 차별없이 행복한 예산군!'을 슬로건으로 내빈과 여성 단체 회원 등 50명 미만으로 축소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 민국 여성의 위대한 자존감'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송진구 교수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며, 비대면(유튜브) 방식으로도 송출될 예정이다.

또한 양성평등과 여성단체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7개 여성 단체 회원 들에게 유공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 단체 협의회는 부대행사로 여성회관 로비 등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 의지와 결의를 다지고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레인보우릴레이 캠페인'도 펼친다.

예산=이영렬기자

# 국립하늘숲추모원 '지역상권 활성화 영수증 이벤트' 성료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립하늘숲추모원(경기 양평군, 이하 추모원)에서 추진한 '영수증만 가져와요!'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추모원 소재 지역(양평군 양동면)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피크닉 매트, 구급함, 아이스쿨러백 등 선물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두 달간 진행됐으며, 총 151가족이 참가했다.

추모원 이용객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행사에 대해 높은 만족도(4.85/5점)를 보였으며, 참여자 1인당 평균 소비액이 약 2만 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성훈 산림복지서비스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산림복지시설이 지역상생 및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모원의 연간 방문객 수는 8만 9천여 명(2019년 기준), 상권 이용횟수는 평균 3.6회로 추모원 방문객에 의해 연간 약 25억원의 지역 경제 소비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병배기자

##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마다 마을 주민이 숨어있는 마을의 명소를 찾아내 마을 콘텐츠 개발 및 마을 홍보, 농촌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을해설사가 되어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마을해설사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당진시 문화관광과 남광현 팀장이 '당진의 역사와 문화유적'이라는 주제로, 소셜미디어팀 김재진 팀장은 'SNS를 활용한 마을 홍보 방법'을 주제로, 20년 이상 충남지역에서 해설사로 활약한 이혜영 씨가 해설사의 역할을 주제로 수강생의 역량강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자동차 종합 정비공장
에스더블유기업(주) SW
렉서스 지정정비협력 혼다 지정정비협력 푸조 지정정비협력 재규어 지정정비협력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26
Tel. 042-528-1800 / Fax. 042-528-1833
Mobile. 011-429-8377 / e-mail. kyungho0710@nate.com
대표이사 안 경 호
www.sw-motors.com

EN.F 엔.에프
Total Interior Design
대표 손 혁 건
Mobile 010-8422-6946
주방가구 · 붙박이장

**장종태 청장, 대전 서구 보훈회관건립 현장 방문** 장종태 서구청장은 25일 갈마동 363-10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서구 보훈회관 신축 현장을 방문했다. 장 청장은 상이군경회 서구지회장등 6명의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진행해 온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만전당 홍가신 선생 제480주년 탄신제 거행** 24일,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소재 만전당영정각에서 홍가신선생의 탄신 480주년을 기념하는 탄신제가 봉행됐다. '만정단 홍가신 선생 탄신제'는 숭모회(숭모회장 권희천) 주관으로 매년 음력7월 17일 홍가신선생의 숭고한업적을 기리며 거행하고 있다.

**당진 관내 농 · 축협, 당진보건소격려 방문**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지부장 조원상)는 지난 25일, 순성농협 강도순 조합장, 송악농협 이창휘 조합장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당진보건소를 방문해 관내 농 · 축협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우리 농산물위문품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대 LINC+사업단, 대전역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대전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 대전대학교(총장 윤여표) LINC+사업단(단장 이영환)은 25일 대전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대전역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송복섭), (재)대전디자인진흥원(원장 윤병문)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및 지역 기반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진행했다.

## 한남대, 다음달 10일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는 9월 10일부터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에 돌입한다.

2022 수시모집인원은 2369명(정원내)으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86.0%를 선발한다. 지난해 수시모집전형에서 87.1%를 선발했으나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에 부응해 수시모집 비율을 다소 낮췄다.

한남대의 수시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형간 복수지원이 허용된다.

올해 주요 변화는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의 선발방식이다. 지난해 지역인재전형은 1단계 평가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반영했으나 올해에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여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했다. 1단계 학생부 평가점수 100%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점수 30%를 합산한다. 반면, 학생부종합 한남인재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평가는 유지하는 대신 면접평가를 폐지하여, 면접이 다소 자신 없는 수험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수시모집은 9월 10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7시까지 원서접수를 받으며, 서류는 9월 16일 오후 9시까지 제출하면된다. 자기소개서 입력도 9월 16일 오후 9시까지 완료해야한다.

김정환기자

###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와 동문들 세무 · 회계 전문가 양성 위해 장학기금 조성

# 2021 한밭회계사랑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25일 교내에서 회계학과 교수진과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학년도 한밭회계사랑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욱 총장과 회계학과 박성환, 임재학, 권기정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정성옥, 백영희, 이명주 동문 등도 함께 했다.

한밭회계사랑 장학금은 2017년부터 회계학 전공 교수와 동문, 업체 대표가 세무 · 회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약 5천 6백만원이 모아졌고, 이 중 일부를 재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소식을 접한 관련 동문들의 참여가 더해지고 있어 모교에 대한 관심과 후배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백영희 동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후배들에게 하나의 도움이 되고 이 후배들이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기민욱 학생은 "열심히 해서 선배님들처럼 각 분야의 인재가 되어 받은 사랑을 다시 후배들을 위해 베풀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최병욱 총장은 "회계학과처럼 교수님들과 동문들이 함께 전통을 이어가며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전달하는 학과가 많지는 않다"며, "변치 않고 꾸준히 대학을 지원해 주시는 동문님들과 또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대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금만 더 견디고 학업에 정진하여 훌륭한 전문가로 성장해 학과의 전통을 계속 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 박두용 이사장 대전세종광역 방문

### 소통중심의 현장경영 실시 및 일제점검 맞이 사업장 지도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이 25일 오전 10시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본부장 김일수)를 방문, 전국적인 일제점검(패트롤-Day) 맞이 대전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경영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지역과의 공감대 조성을 통해 산재 사고사망 감축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진행됐으며, 박두용 이사장은 현장경영 간담회에서 패트롤 점검 등 공단의 브랜드 사업을 통해 올해 사망사고 목표를 달성하고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피력했다.

간담회 이후 박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공단 인력이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일제점검하는 '패트롤-Day'를 맞아, 직접 대전세종광역 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방문해 추락 · 끼임 사고예방을 당부하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지도했다.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김일수 본부장은 "이사장님의 경영철학을 산재예방 전략에 반영해 대전세종광역 사고사망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 2021 금강자연미술 프레비엔날레 개막

### 8월 28일 개막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 금강자연미술 프레비엔날레가 8월 28일 개막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주 연미산자연미술공원에서 개최된다.

재야생(rewilding)을 주제로 '또 다시야생(多視野生)'이란 제목으로 펼쳐지는 이번 프레비엔날레는 2022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작품 공모에 참여한 45개국 117인(109점)의 작품계획서를 선보이는 '2022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프로젝트전'과 44개국 303인(421점)이 참여하는 자연미술 큐브전 '12×12+자연'이 열린다.

연미산 숲속 야외 설치작품 전시인 '자연미술전'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초대작가의 입국이 지연되어 개막 이후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100여 점의 야외 설치작품을 즐길 수 있는 '비엔날레 상설작품전'은 지난 3월부터 열리고 있으며, 해외에서 진행되는 '국제협력프로젝트'는 지난 6월 프랑스에 이어 9월과 10월에는 독일과 몽골, 중국에서 각각 펼쳐진다.

그밖에 '야투 자연미술워크숍', '나무랑 놀자' 등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다.

2021 금강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는 2022년 개최될 본 비엔날레를 위한 준비 및 홍보와 또한 독립적인 행사로서 자유로운 형식의 기획을 통해 많은 작가들과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 대전투데이 www.daejeontoday.com

**충남도, 희망나눔 장학금 전달식 개최**

충남도는 25일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김정안 회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나눔 디딤씨앗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 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월 5만 원 내에서 매칭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를 진출할 때 학자금이나 주거비용 등 자립 초기 비용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2018년 11월 도와 협약을 맺고, 도내 취약계층 아동 150명에게 디딤씨앗 장학금으로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7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부고 ▲ 김창섭((주)라이프타임즈 대표)씨 부친상(김동수씨 별세) = 8월 25일, 빈소 유성선병원 장례식장 VIP3호실, 발인 8월 27일 오전 7시30분, 장지 대전 현충원. 전화 042-825-9494

DT Daejeon Today

**세종시 · 고려대학교 · 주민자치연합회 ·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협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마을계획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민 · 관 · 학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자치 실현에 나선다. 시는 25일 고려대학교 세종교육혁신원(원장 양지운),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회장 안주성),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센터장 주일식)와 마을계획사업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당진발전본부, 2021년도 지역인재 장학생 모집

### 발전소 인근 지역 학생 9월 24일까지 신청 접수… 570여 명 선발 예정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는 25일,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2021년도 당진발전본부 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본 장학사업은 「발전소주변 지역법」에 따른 육영사업으로 발전소 인근 지역의 성적 우수 학생 및 생활 여건이 취약한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올해 선발대상은 당진시 석문면,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또는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에 2년 이상 거주 지역주민 또는 그 자녀이며, 해당 거주기간 요건은 장학회 정관변경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22년) 3년, ('23년) 4년, ('24년 이후) 5년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장학생은 성적, 복지 및 특기 분야로 나누어 570여 명을 선발하며, 1인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타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의 경우 본인 교육비 부담액 한도 내에서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24일까지로 19일간이며,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지원서는 장학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동서발전 홈페이지(www.ewp.c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순천향대, 2021 메타버스 소담소담 페스티벌 개최

순천향대(총장 김승우)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2021 메타버스 소담소담(소통 · 상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담소담 페스티벌은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대학과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소통을 촉진하고 다양한 진로 ·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저학년 대상 학교적응을 위한 집단상담 및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통 · 상담 페스티벌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6개 단과대학 53개 학과, 총 3,230명의 재학생들이 SK텔레콤 'ifland' 플랫폼을 이용한 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에서 대학이 준비한 다양한 소통 · 진로 · 취업 · 심리건강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中企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신성식 충남중기청장 방문

### 조합추천제도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지원 요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회장 조창현)는 25일 신성식 충남중기청장을 방문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조합추천제도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시책 참여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충남중기청을 방문한 조창현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은 "충남소재 공공기관의 조합추천수의계약제도 활용 확대와 금년 4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기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인정되어 지자체의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성식 충남중기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협동조합과 중소 기업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기 고

# 기억해야 할 날, 경술국치

전 성 호
대전지방보훈청 취업교육팀장

우리에게 8월은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이 있는 뜻깊은 달이지만, 한편으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국가적 치욕을 당한 달이기도 하다. 바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당한 경술국치일이 8월 29일이다.

일제는 1876년 조선과 강압적으로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화 계획을 치밀하게 실행해 나갔다. 조선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1894년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하였고, 이후 조선이 친러정책을 표방하자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켜 러시아 세력마저 몰아내고 만다. 이로써 일제는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그 뒤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 헤이그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으며,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기에 이른다. 이에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의병 활동이 전개되었으나,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국내 항일운동은 약화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나 러시아 등 해외로 이주하게 된다.

국내외에서 세력이 크게 확장된 일제는 한반도 식민화를 단행하기 위해 1910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의 이름으로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한 일제는 조약체결을 숨긴 채 각종 단체 집회를 금하고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뒤인 8월 29일에 공포하였다. 이로써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외교권, 사법권, 경찰권을 빼앗은 뒤 마침내 국권마저 강탈한 그 해가 경술년(1910년)으로, 경술년에 국권을 빼앗긴 국가적 치욕이라 하여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 한다.

이렇게 치욕적인 날인 경술국치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역사적 수난을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의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민족의 애국심과 저항정신이다. 비록 일제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쫓겨가듯 해외로 망명했지만 수많은 탄압에 꺾이지 않고 항일운동을 이어나갔다.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형태의 독립운동이 전개되었고, 만주에서는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돼 독립군을 양성하기 시작했으며, 연해주에서도 이상설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1919년에는 국내외에서 3·1운동이 전민족적 항일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제에 더욱 거세게 저항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처럼 경술국치의 치욕과 나라를 잃은 아픔을 극복하고 국내외에서 계속 항일활동을 이어나간 우리 선열들이 있었기에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듯, 우리가 광복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경술국치의 아픔도 함께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 기 고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정 강 원
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안전기술진흥원 대표이사

안전보건교육은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부여하고, 직장에서의 안전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과 훈련을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는 일반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 기계 등의 설계기술자, 건설 공사의 계획참여자 등 사업장의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한다. 만약 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 법으로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년마다 법이 정한 교육으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 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으로 인식을 통해 개선이 되고,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사고 대비 예방교육이 될 수 있으며, 유익한 정보가 많아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정 정기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처벌에 관한 언급도 최근 사고 발생 시에 언급되는 것은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에서는 최소한의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예방은 물론 방지하는 의식을 지향하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두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정을 1. 정기교육(관리감독자 교육 연간 16시간 포함)으로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현장 근로자 등은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채용 시 교육으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으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4. 특별교육은 동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작업에 따라 법이 정한 교육시간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종사 근로자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반)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에 정하고 있듯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은 이 법이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고 이에 산업안전교육 실시 여부는 법의 이행과 관련됨을 꼭 상기하시고 관련 교육 이수에 대한 사실 기록관리에도 중요성이 있으므로 기록 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설

# 말라리아모기 물림에 각별한 주의를

처서가 지나면 고온다습하던 한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사라지는 시기다. 하지만 가을장마 탓인지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 건강에 유의해야 하겠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말라리아 감염 위험지역인 파주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됐다는 소식이다.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 '학질' 또는 '학'이라고 알려진 열병이다. 모기에 물려 해마다 발생하는 말라리아 환자다.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오한과 고열, 발한 등이 나타난다고 한다. 초기에는 권태감과 발열이 수일간 지속되고 두통이나 구토, 설사 증상도 보이기도 한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학질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감염되는 삼일열 말라리아는 대부분 적절한 치료로 완치되지만 해외여행에서 걸릴 수 있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적시에 진단·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부전, 용혈성 빈혈, 대사성 산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폐부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5월부터 말라리아 방역에 나선 인천시 서구의 경우 10월까지 말라리아 방제용 드론 4대를 동원해 68만여㎡ 면적의 유휴지에 친환경 방역약품을 살포한다. 방역약품 살포 시간대는 모기가 수풀에 머무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주 1회 이상 시행되고 있다. 유휴지나 하천 등 지역 특성상 사람이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방역 작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서구 드론 방역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여타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강화군도 6월부터 말라리아 모기에 의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모기 발생지인 축사 주변의 풀숲을 집중 방역하는 등 여름철 방역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의 당부대로 파주·강화·김포 등 말라리아 창궐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들은 취침 시 방충망을 철저히 관리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기피제 활용, 긴 옷을 착용하는 등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다.

# 오십보백보 정치권의 부동산 불법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6개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 50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와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에서 12명, 열린민주당에서 1명의 불법 거래 의혹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드러났던 국회의원도 12명이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동일한 수의 불법 거래가 확인된 것이다. 여야 모두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유구무언인 상황이다.

당시 민주당은 부동산 불법 거래에 있어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투기 의혹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일괄적으로 관련 의원 모두에게 자진 탈당과 출당 조처를 내렸다. 이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서 불법 거래 의혹이 나오면 여당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본인이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의지와 달리 당내에서 징계 수위에 대해 찬반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다시 이 대표의 리더십과 당의 불협화음이 드러날 위기에 놓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결과에 대한 조처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이 그간의 내부 분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은 만큼 국민의 신뢰와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해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징계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번 권익위의 부동산 관련 조사 결과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 사회 일부 지도층·정치권 인사들이 앞장서 부동산 투기에 나섰고 이와 관련해 온갖 유형의 방법들이 총동원되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역시나 하면서도 실망스런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이는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온 대부분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일이다. 평범한 국민들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 정책이 엇나가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떳떳하지 않은 정치권에서 만든 부동산 정책을 국민이 신뢰할 리 없다. 더 이상 불법이 용인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이번 사태의 처리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 中企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석환 홍성군수 방문

## 콘크리트 협동화시설 건립지원 요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회장 조창현)는 25일 김석환 홍성군수를 방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콘크리트 전시장 및 연구시설 건립지원 △『홍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조합추천계약제도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개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예산 지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홍성군을 방문한 조창현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은 "홍성군은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를 계기로 환황해권 경제중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반마련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현창성 대전세종충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충묵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등이 동석했다.

송병배기자

#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2개소 위수탁 계약 체결

보령시는 25일 시장실에서 동대센트럴 및 명천시티프라디움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위탁체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수탁자와 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탁자로는 동대센트럴 어린이집은 김민영 씨가, 명천시티프라디움 어린이집은 심영래 씨가 각각 원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

계약에 따라 위수탁 기간은 5년으로 동대센트럴 어린이집은 오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이고, 명천시티프라디움 어린이집은 리모델링 이후 인가할 예정이다.

한내로터리길 165에 위치한 동대센트럴 아파트는 현재 665세대 17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는 130여명으로 공립어린이집 정원은 29명이다.

또한 명천로 106에 위치한 명천시티프라디움 아파트는 현재 553세대 1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는 140여명으로 공립어린이집 정원은 36명이다.

시는 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70%를 아파트 단지내 거주자 자녀로 우선 입소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전문 수탁자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허태정 시장, 27일 오픈 앞둔 대전신세계 현장 점검

## 방역·교통 대책 철저 당부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오후 도룡동 대전신세계 Art&Science를 찾아 방역 및 교통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27일 오픈을 앞두고 있는 대전신세계의 방역대책과 시민들우려가 큰 교통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허 시장은 대전신세계로부터 방역 및 교통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7층 과학·문화시설과 1·2층 매장 등을 돌아보며 방역설비, 전담인력 배치 현황, 교통체증 완화 대책 등을 확인했다.

㈜대전신세계는 대전시와 논의하여 기본 방역 이외에도 AI열화상카메라, 공간살균기 등 특수장비를 설치하고 방역전담인력 100여명을 투입하는 등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별도의 수용인원 제한이 없는 백화점 방역기준에도 불구하고 방역기준 최고 수준인 8㎡당 1명을 적용하여 이용객 수를 통제한다. 또한, 교통체증에 대비하여 추가로 확보한 임시주차장 2,250면 등 총 5,081면의 주차장과 140여명의 유도인력을 운영하여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주 개점 전 방역대책 사전점검을 마쳤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유성구,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방역 및 교통 현황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신세계 측에 "코로나19 4차 유행 시기에 대형 매장이 개점하게 되어 시에서도 걱정이 많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신세계 Art&Science는 8.25.(수) ~ 26.(목) 프리오픈을 거쳐 27일(금) 호텔과 함께 정식 개점하며, 타워동 전망시설은 9월 초 문을 열 계획이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현정 | 회장 김성구 |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 기사제보 042)538-1601 |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 광고산청안내 042)538-1603 | 구독료 월1만 50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둔산병원신축사옥

도시형 생활주택

문화·쇼핑·교통·의료의

특권을 모두 누리는 곳

SAMYOUNG BUILDING

삼영빌딩